



아리랑 소녀의 모험



박정애 지음

0.01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Jeongseon Arirang Culture Foundation





지은이 박정애

1970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

1998년 <문학사상> 신인공모를 통해 등단.

2001년 한겨레 문학상 수상.

장편소설 <에덴의 서쪽>, <물의 밀>, <강변>

소설집 <춤에 부치는 노래>, <죽죽선녀를 만나다>

청소년소설 <환절기>, <다섯 장의 짧은 다이어리>

동화 <뚱 땅나라에서 온 친구>, <친구가 필요해>

외 다수 출간.

문학박사.

강원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아리랑 소녀의 모험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아 이구, 월천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백짓장 같으
세요.”

“아, 글썄, 떼꾼 장서방이 어젯밤 행상꾼 지게에 들려왔다지
뭐야? 이번에도 이무기가 물어 죽였다나 봐. 배에 이무기 이
빨 자국이 있더라.”

“에구머니나. 먼젓번에는 건넛마을 소를 몽땅 물어 죽여 놓더
니만 이번에는 사람까지? 에구 무서워. 징글징글해. 이거 어
디 살이 떨리고 이가 갈려서 잠이나 자겠어요?”

“우리 어머니 어릴 적에는 곰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더군. 내가 시집오기 전에는 또 호랑이가 내려와서 아이들을
몰어갔지. 산짐승 무서운 줄은 알았지만 물짐승까지 나뉠 줄
이야 어찌 알았겠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산짐승들은 함정도 파고 총도 쏘고 해서
어찌어찌 잡아 죽이기라도 했지요. 그런데 이무기는 사람이
어떻게 잡는대요? 강에다가 독을 풀어야 하나요?”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우리가 그 강물 퍼 먹고
사는데 거기다 독을 풀면 우리까지 다 죽게? 물고기들은 어떡
하고?”

“그물을 쳐서 잡을까요?”

“옛날부터 ‘용 못 된 이무기 심술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어. 암만 그래도 용이 되다 만 놈인데 머리가 좀 좋겠어? 그 비상한 머리로 심술을 부리면, 인간의 힘으론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

“폭약을 터뜨리면 안 될까요?”

“글쎄, 그랬다가 괜히 엠한 사람들까지 죽어나가면 어떡하나...”

“떼꾼 보낸 우리 서방님 걱정돼서 그러지요. 그나저나 장서방네는 불쌍해서 어떡한대요? 장서방네 혼자 그 어린 것들을 어떻게 기른다죠? 쫓쫓.”

“산 좋고 물 맑고 농사 잘 돼 살기 좋다고 소문난 우리 여량리가 왜 이렇게 뒤숭숭해졌을까?”

“안 뒤숭숭할 수 있나요? 힘깨나 쓰고 재주 좋은 남정네들은 죄다 경복궁에 부역 끌려 나갔죠. 그나마 남아 있는 장정들은 떼돈 벌겠다고 너도 나도 떼 타러 갔죠. 근데 이제 그 떼꾼들을 이무기란 놈이 해치고 돌아다니니 말이에요.”

여량리 우물가에서 만난 두 아낙네의 근심 어린 수다가 그치지 않는다.

동강의 신비스런 푸른빛을 닮아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거대한 이무기가 사람과 짐승을 해치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지 두 달여. 드디어 여량리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다.

“아이구, 저기 장서방네 작은집 식구들이 상복 차려입고 가네 그려. 장사 지낼 채비가 됐네보네. 우리도 얼른 가서 부엌일이

나 도와주자고.”

“그래요, 형님.”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종종걸음을 쳤다.

장서방네 돌집은 대문이 열려 있고 마당에 차일이 쳐져 있다. 굴전을 쓰고 거친 베옷을 입은, 그러나 자기가 왜 그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는 듯한 다섯 살배기 아이가 천방지축 마당을 뛰어다녔다. 아이 삼촌이 아이를 붙들어서 꿀밤을 두어 대 먹이자, 아이는 그때서야 초상집게 걸맞게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소복 입은 장서방네는 벌써부터 눈물범벅이 되어 가슴을 탕탕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아이고 서방님아. 나를 두고 먼저 가면 나는 어찌 살라고 오오..... 이 어린 것들을 놔두고 가면은 나는 어찌 살라고 오오오오..... 아이고 서방님아. 이렇게 가면 불쌍해서 어떡하나. 쌀밥 한 번 배불리 못 먹어보고 새 옷 한 벌 번듯이 못 입어보고 억울해서 어찌 가오오오오..... 벌떡 일어나 말 좀 해보소. 아이고 나는 우리 서방님 못 보내겠네. 불쌍하고 억울해서 못 보내겠네에에에..... 하늘도 무심하고 강물도 무심하여라. 법 없이도 살 우리 서방님,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리 빨리 데려가시나.”

엄마 옆에 늘어진 어린 딸들이 엄마를 따라 엉엉 울었다. 마을 사람들도 더러는 훌쩍거리고 더러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아무리 경황없는 초상이라도 장례 구색은 갖춰야 하는지라, 마을 사람들은, 누구네 집에서 병풍을 빌려와 친다, 경 입을

스님을 부른다, 돼지를 잡는다, 하며 바빠 돌아쳤다.

여량리 정목수네 작은딸 선이도 부엌을 들락거리며 제 판에는 열심을 다해 마을 아주머니들을 도왔다. 가끔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가만 돌아서서 훌쩍거리기도 했다. 장서방네 맏딸이 동갑내기 친구라 마음이 더 안됐고 서글펐다.

사방에 어스름이 깔리자, 이웃동네 지인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월천댁이 부엌문 앞과 차일 아래 남폿불을 밝혔다.

선이는 음식 쟁반을 나르다 말고 월천댁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선이야, 더 늦기 전에 이거 들고 집에 가거라.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다.”

월천댁이 대나무 소쿠리에 나물과 지지미, 삶은 돼지고기를 담아 내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정이 언니가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뭘.”

“아니다. 우리네야 여기서 밤을 새면 되지만, 어린 처녀가 그럴 수야 없지. 이무기란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세상이잖니. 예구, 오늘은 품일도 못 했을 것 아니냐. 어머니랑 정이가 쫄쫄 굶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서둘러라. 산사람은 어쩔거나 살아야지. 장서방네도 저 어린 것들을 봐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선이가 꾸벅 인사를 하자, 월천댁이 얼른얼른 가라는 뜻으로 손사래를 쳤다.



장 씨네 돌집을 나선 선이는, 아우라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솔숲 언덕 위, 솜씨 좋게 지어진 너와집을 향해 달음질 쳤다. 다람쥐 한 마리가 선이를 따라붙었다.

“다람쥐야, 배고파? 하지만 너는 이런 음식에 맛들이면 안 돼. 이건 인간들 음식이지 다람쥐 음식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런 거 자꾸 먹으면 병 생겨. 아, 참! 목 쭈려다 못 쭈고 모아둔 도토리, 있는데, 그거 좀 줄까?”

다람쥐가 꼬리를 흔들었다.

“좋아. 우리, 누가 빨리 달리나, 시합할까?”

선이가 다리를 더 빨리 움직였다. 다람쥐도 속도를 냈다.

저 멀리, 방문을 열어둔 채 딸들을 기다리며 바느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이마에 수건을 두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모습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듯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것 좀 봐요. 월천댁 아주머니가 이렇게나 맛난 것을 싸주셨어요.”

선이는 짚신 짚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이 지지미 먼저 잡숫고 계세요. 제가 얼른 밥 지을게요.”

“오냐, 오냐. 월천댁은 번번이 고맙구나. 나중이라도 그 은혜

를 잊지 말거라. 우리가 그 집에 보리쌀 양식을 얼마나 많이
빚지고 있지? 그런데도 여태 갚으라는 채근 한 번 하지 않고
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 원. 참, 장서방네하고 아이들은
어떻더냐? 예그, 얼마나 애통할까.”

“아주머니랑 아이들이랑 우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벌렁벌렁
하고..... 너무 안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앓으시는 분이
가만 누워계시지 않고 무슨 바느질을 그렇게 하세요?”

“종일 누워있었더니 허리가 아파서..... 우리 작은딸 속곳
좀 만들고 있었다.”

“제 속곳을요?”

“너도 이제 열네 살이 됐으니 입성을 갖춰야지. 좀 있으면 정
이마냥 가슴도 여물 테고..... 그렇다고 정이마냥 총각놈하고
눈 맞아 싸돌아다니진 마라. 남부끄럽다. 아버지도 안 계신 마
당에 당장 혼인을 시켜줄 수도 없지 않니? 저러다 총각놈이
덜컥 변심이라도 하면 손해 보는 건 처녀 쪽이야. 어리석은
것.”

“아니, 언니는 어머니 밥도 안 지어드리고 이 저녁에 뭐 하고
있대요?”

선이가 입술을 빼어 물고 그 말을 하자마자 정이가 혈레벌떡
달려 들어왔다. 정이의 두 뺨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하
니 윤기가 돌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얼른 밥 지을게요.”

정이는 어머니와 선이의 눈치를 쭉 살피고 부엌으로 내뺐다.
어머니 눈에 아련한 슬픔의 눈물이 차올랐다.

“좋은 때다, 좋은 때야.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시절이야, 저 때가.”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문 밖 사립문 위에 뜬, 초롱초롱 빛나는 개밥바라기별을 올려다보았다.

“에그, 선이야. 오늘따라 네 아버지가 왜 이리 보고 싶다니? 우리 큰딸 사윗감도 선보이고 우리 작은딸, 어린애 티 벗고 처녀꼴 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당신 그리워 죽도록 앓는 줄도 모르고 한양서 첩살림 차린 건 아닌지 몰라. 그새 아들자식도 하나 얻고 말이지.”

선이는 정색을 하고 쏘아붙였다.

“어머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에요?”

“그건 그래. 제 식구 끄찍이 아끼는 분이시. 내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였구나. 에그, 우리 작은딸, 이리 와라. 한 번 안아보자. 에그, 예쁜 것.”

선이가 아기처럼 어머니 품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도 선이를 아기처럼 꼭 껴안았다. 선이의 어깨에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리 어머니, 또 우시네..... 어머니, 걱정 뚝! 눈물 뚝! 어머니 작은딸 선이는요. 평생 시집 안 가고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랑 살 거래요. 울지 말고 기다리시면 아버지도 금방 돌아오실 거고요. 어머니는 그저 잘 잡숫고 몸 추스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 배고프다. 어머니, 저도 부엌일 거들게요.”

선이는 방문을 열고 쥘신을 꿰어 신었다. 그때 무언가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 발뒤꿈치를 건드렸다.

“다람쥐? 아이쿠, 미안해라. 많이 기다렸지?”

선이는 헛간으로 가서 나무궤짝에 든 도토리를 양손 가득 담아 다람쥐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이가 아궁이 앞에서 부지깽이 타는 줄도 모르고 졸고 있었다. 선이는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언니!”

정이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다. 그 바람에 불붙은 부지깽이가 정이의 치마에 떨어졌다.

“아이고머니, 내 치마 다 타겠어!”

정이가 불씨를 털어내느라 폴짝폴짝 뛰었다.

“조용히 깨우면 되지 왜 사람을 놀래켜?”

정이가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선이를 흘겨보았다.

“어머니 시장하신 거 몰라? 내가 초상집 다녀올 동안, 어머니 진지 챙겨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선, 만날 유천리 금동이 총각 만나느라 정신을 쏙 빼놓고..... 언제 철들래?”

정이의 두 뺨이 아궁이 불길처럼 새빨개졌다.

“쥐방울만 한 게 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너처럼 어린애니? 나는 열여덟, 다 큰 처녀라고. 내 친구들은 열여섯, 열일곱에 다 시집갔어. 나만 노처녀로 늙게 생겼단 말이야.”

굵다란 눈물방울이 정이의 붉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오시면 이대로 처녀귀신 되게 생겼어. 금동이도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고 기다려줄 수는 없대. 빨리 장가들어 손자 안겨 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성화가 심한가 봐. 네가 내 고민을 알아, 아냐고?”

“그 총각, 언니를 정말로 좋아하기는 하는 거야? 좋아하면 언니 사정을 이해하고 언니를 보호해 줘야지. 턱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핑계는 왜 대? 만약에 언니가 시집가서 우리 어머니처럼 딸만 둘 낳으면, 그 총각, 또 할머니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서 언니를 쫓아내진 않을까?”

“뭐야? 네가 금동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개가 얼마나 착한데. 벌써 이 년씩이나 목 빼고 기다렸으니까 나더러 어떻게 좀 서둘러보란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지. 너,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말해 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정이가 목이 메어 울먹거렸다. 선이는 뿔이 나서 대꾸도 하기 싫어졌다. 밥상을 기다릴 어머니 생각을 하면 더욱 그랬다.

“관두자, 관둬. 언니는 늘 자기 생각밖에 안 하지.”

선이는 행주로 개다리소반을 훑치고 수저와 간장, 찐지 종지를 올렸다. 가마솥에서 부연 김이 천장까지 피어올랐다.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언제나 이 미끈덩거리는 보리밥을 면할까? 참기름 넣고 쌀미음 뽕얇게 끓여 드리면 어머니도 잘 잡수실 텐데.....”

돈

아 오르는 아침 해의 붉은 기운이 희푸른 아우라지를 시나브로 물들인다. 선이는 하루 중, 만물이 깨어나는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선이는, 짚신짜를 대강 꿰어 신고 나물바구니에 호미 하나 얹어 옆구리에 끼고는 솔밭을 지나 들로 달려 나갔다. 5월의 산천은 피고 지는 꽃들과 맛난 나물들로 그득하다. 온갖 새들과 나비 떼도 생명의 합창을 부른다.

“까막딱따구리야, 안녕? 오늘은 유난히도 소란스럽구나. 누굴 부르려고 그렇게 큰소리로 그루터기를 두드리는 거니? 날 부르는 거였어? 그렇담 내가 나왔으니 우리 어머니 단꿈 깨지 않게 그만 두드리렴. 어머니는 지금쯤 꿈속에서 아버지 만나고 계실 거거든. 어? 노랑할미새다. 노랑할머니! 노랑할머니, 잘 잤어요?”

선이의 머리 위로 큰유리새와 희령푸른부전나비가 날아갔다. 선이는 제 옆으로 온 나비에게 눈을 맞추고 속삭였다.

“푸른나비야. 한양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집 소식 좀 전해주렴. 어머니는 병환이 들어 집 밖으로 거동을 못하시고 언니는 시집가고 싶어 안달이지. 약값도 다 떨어졌고 보리밥도 껴서 먹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솔직히 답이 없다. 아버

지 제실 땀, 어떤 문제든 금방금방 해결되었는데. 아, 아버지.
이 소식 들으시길랑 한달음에 달려오셔요, 예?”

심부자네 빨래품 팔아 얻어온 좁쌀 한 줌으로 세 식구 먹을
죽을 끓이려면 얼른 보드라운 봄나물을 한 바구니는 뜯어가야
한다. 선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연한 애쑥과 냉이를 캐어 바구
니에 담았다.

“애쑥아, 냉이야, 미안하고 고마워. 내 몸에 들어가고 올 어
머니 몸에 들어가고 올 언니 몸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도 살아
갈 힘을 줄 테니까 말이야.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 정말
정말 고마워. 헤헤. 아리랑 한 자락 들려줄까?”

이철인지 저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얼었나 살짝 녹으니 봄철이로구나

나물바구니 둘러 메고 동산 나물을 가니
동삼(冬三)에 쌓였던 마음이 다 풀리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번에는 날렵한 몸매의 제비 한 마리가 선이의 주위를 맴돌
았다. 선이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제비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래품이
나 방아품은 아무리 팔아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돈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고소한 쌀미음을 끓여드릴 텐데, 봄나물이
 향긋하다지만 아픈 사람이 날마다 나물죽만 먹으면 지겨울 거
 야, 그치? 어머니는 나물죽이 껄껄해서 넘어가질 않는데. 나
 도 쌀밥만 생각하면 입 안 가득 침이 고여, 그리고 돈만 있으
 면 울 언니, 혼수예단 골고루 장만해서 시집보내줄 텐데, 물
 한 그릇 떠놓고도 혼사를 치른다지만, 엄마는 안 된대. 정목수
 의 큰딸이 인륜지대사를 그리 허술하게 해치울 수는 없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돈을 벌고 싶단다. 어떡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제비가 날갯짓을 두어 번 하다 선이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제비야, 제비야, 우리 아버지, 몸 성히 잘 계시겠지?”

선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뼈죽, 입도 나왔다.

아침마다 사립문 앞 오동나무에 기대어 서라 하고는, 우리
 작은딸 얼마나 컸나 보자, 하며 나무껍질에다 칼로 눈금을 긋
 던 아버지. 밤, 대추, 으름, 산딸기 같은 것을 주머니에 넣어
 와선, 선이야, 뒤꼍으로 와라, 불러내어 몰래 먹이던 아버지.
 언문을 가르쳐 주고는 심청전, 별주부전을 사다 주던 아버지.
 배워두면 써 먹을 데가 있을 거라며 간단한 목수 일을 가르쳐
 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못 본 지 벌써 2년.

내가 그동안 훌쩍 자라 키가 정이 언니보다도 큰데, 우리 동
 네에선 책을 제일 또랑또랑 잘 읽어서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소설책 읽어달라고 서로 데려가려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
 도 못 보시고 왜 한양에만 계셔야 하는 걸까?

선이는 아우라지 강가로 내려가, 푸푸, 세수를 했다. 쉬리,

금강모치, 어름치가 선이의 손 주변을 맴돌았다.



목 재창고에 큰불이 나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목수는 먼동이 틀 즈음부터 경복궁을 중수하는 공사장에 나와 앉았다. 팔도에서 끌려온 부역꾼들이 풍기는 독한 땀내, 발 고린내, 담뱃진 내가 진동하는 숙소에서 코고는 소리, 이 가는 소리,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으며 뒤척뒤척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맑은 새벽공기를 마시며 마음 맞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편이 좋아서다.

“어깨며 허리며 안 쏘시는 데가 없군. 이럴 땐 우리 작은딸이 해주는 안마가 최곤데. 녀석, 많이 컸겠지. 우리 큰딸은 이제 열여덟 살이 됐을 텐데.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처녀티가 확 풍겼으니 혼기가 꼭 찬 지금은 더하겠지.”

강화도에서 온 마서방이 말장단을 맞추었다.

“시집보내야겠수. 올해 놓치면 노처녀 되겠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마누라 혼자서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딸아이 혼사를 어떻게 치르겠어? 답답한 노릇이야. 쥐꼬리만 한 노임이나마 술 한 잔 안 받아 먹고 모아두긴 했는데, 도대체 사람을 놓아주질 않으니 원.”

“아이고 형님. 그 장한 노임, 모아봤자 새 밭의 피요. 원납전¹⁾을 내야 풀려나든 말든 하지, 그거 모아 어느 세월에 고향을 가겠소? 차라리 중수 공사 끝나기를 기다리슈.”

대원군은 백성들에게서 원납전을 거둬들이기만 할 뿐 팔도에서 차출해온 부역꾼들에게는 하루에 술 한 병 사먹을 만큼의 돈 밖에는 주지 않았다. 정목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졌다. 과연 수년 내에 이 엄청난 공사가 끝나기는 하려나. 공사 중에서 죽어나가는 부역꾼들도 많던데, 아내와 딸을 다시 보지 못하고 덜컥 죽어버리면 억울해서 어찌나.

정목수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자, 경기도 죽산에서 왔다는 공목수가 한 마디 거들었다.

“형님, 또 자식 걱정 하시오?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다 저희들 팔자대로 살게 돼 있으니까. 아, 부모가 걱정한다고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면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자식농사 못 지을 사람이 없겠수다. 제기랄, 나는 자식놈 얼굴은 안 떠오르고 마누라는 보고 싶어 미치겠수.”

하긴, 정목수 역시, 딸들도 딸들이지만, 아내가 가장 그립고 걱정스러웠다. 치맛자락을 접어올리고 아우라지에서 고둥을 줍던 처녀시절의 아내.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그 처녀를 데려와 여태껏 고생만 시켰다. “곤드레 만드레 늘어진 골에 당신은 나물 뜯고 나는 꼴 베며” 행복했던 신혼시절은 잠시잠깐, 아내는 아이들을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골골거리기

1) 구한말에, 대원군이 경복궁 중수를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였던 기부금.

시작하여 내내 약을 달고 살았다. 그 짝한 아내가 남편 없이 딸 둘 건사하며 어찌 살아내는지.

그때, 정선 땅에서만 보던 푸른 나비 한 마리가 정목수의 눈 앞에서 팔랑팔랑 날갯짓을 했다. 정목수가 벌떡 일어나며 반가워했다.

“이게 누구냐? 내 고향 나비 아니냐?”

공목수가 괜스레 빈정거렸다.

“나비가 나비지, 고향 나비는 무슨.”

마서방이 정목수의 편을 들었다.

“객지에선 고향 까마귀만 봐도 눈물이 나는 법이야. 그 불길하다는 까마귀도 반가운 참에 나비가 왜 안 반갑겠나? 더구나 흰나비, 노랑나비하곤 달리 푸른 나비란 건 흔하지를 았잖아.”

공목수와 마서방의 대거리 따위는 꺾등으로 흘러들으며 푸른 나비의 날갯짓을 안타깝게 따라가던 정목수가 털썩 주저앉았다.

“안 되겠어. 무슨 수를 내야지. 도망이라도 치든가. 마누라가 많이 아픈 것 같아.”

공목수가 빈정거렸다.

“그 참, 나비가 입이 있어 말을 합디까?”

마서방이 정목수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을 보고는 공목수의 소맷부리를 슬며시 잡아당겼다.

“도망쳐서 뒤탈이 안 날 것 같으면 나도 벌써 도망쳤소. 꽃 같고 달 같은 우리 색시,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거든.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았은 거라. 내 한 몸이야 어디 금강산에라도

숨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흠어머님하고 색시는 당장 강화도 관아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한다고, 형님은 안 그럴 것 같수? 형님이 여기서 내뺄면 형님이 정선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선 현감한테 그놈 잡아 올리라는 통기가 가 있을 거요. 형님이 애지중지하는 두 따님하고 형수님은 벌써 초주검이 돼서 옥에 갇혀 있을 거고요. 그런데도 도망을? 아서요, 대신 마포나루 강주인한테 부탁을 잘 해놓으면 정선에서 온 떼꾼을 이곳으로 보내줄 거요. 만나서 편지를 전하든가 수를 내구려.”

마서방의 말이 맞았다. 도망쳐도 무탈하다면, 누군들 도망을 치지 않으리. 정목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목수가 미안한 맘이 들었는지 너스레를 떨었다.

“형님, 힘내시오. 어쨌든지 힘을 내서 살아남아야 고향을 가도 가고 마누라를 봐도 볼 것 아니오. 내가 경복궁 타령이나 한 자락 부를 테니 힘을 내시오.”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헤에 어야 얼렐렐 거리고 방아로다.

을축사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룩하세.

에헤에 어야 얼렐렐 거리고 방아로다.

에헤에 어야 얼렐렐 거리고 방아로다.

남산하고 십이봉에 오작 한쌍이 훨훨 날아든다.

에헤에 어야 얼렐렐 거리고 방아로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전에 다들어간다.

에헤에 어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듣고 있던 마서방이 거들었다.

“제길, 팔도강산 정 맞은 돌과 크나큰 나무는 전부 경북궁 대들보로 들어가는데 어이하여 내 대들보로는 근심만 들어오나. 이보시오, 형님. 마음이 처량할 때는, 그저 아리랑이 좋습디다. 그 아리랑 가락은 말이오. 어릴 적, 뭇 일로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아이고, 내 새끼, 울지 마라, 금쪽같은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떨어지면 어미 눈에선 피눈물 난다, 하시며 궁둥이 뚜덕뚜덕, 뚜덕거려주시던 어머니 손바닥 같아요. 내 맘을 뚜덕뚜덕, 뚜덕거려준다니까요. 그리 뉘 놓고 있지 말고 아리랑이나 좀 불러주소.”

정목수가 제 거친 손바닥을 한참 들여다보다, 크흑, 목을 골랐다.

강원도 금강산 제일가는 소나무
경복궁 대들보로 다 나가네

강물은 돌고 돌아서 바다로 가건만
나는야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나

서산에 지는 해야 지고 싶어 지느냐
처자식 두고 떠나올 적에 오고 싶어 왔느냐

정선의 옛 이름은 무릉도원 아니냐
무릉도원 어데 두고 타향살이 몇 년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어르신. 한 번만 더 외상으로 지어주세요. 딱 한 번만
요.”

선이는 김약국의 방문 앞에 선 채로 두 손을 모아 쥐고 고개를 조아렸다. 하지만 김약국은 선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곰방대로 낫재떨이만 딱, 딱, 두드렸다.

“어르신, 약 안 지어주시면 저, 여기 꼼짝 않고 앉아서 밤을 새 껍니다.”

그제야 김약국이 선이를 돌아보았다.

“거 안 된다니까. 벌써 열댓 번이나 외상으로 약을 지어 갔지 않니.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다만 얼마큼이라도 외상값을 갚은 다음에야 약을 지어달란 부탁을 할 수 있는 법이야. 너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라.”

“어르신, 제가 한 번만 생각했겠어요? 골백 번도 더 생각했

습니다. 골백 번도 더 죄송스럽고 골백 번도 더 낮뜨겁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는 앓으시니 자식 된 몸으로 어찌 가만히 앉아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겠어요? 지금 당장은 못 갚아도 제가 살아 있는 한,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일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더 외상을 주십시오.”

“좋다. 딱 한 번이렀다!”

김약국이 종이 한 장과 붓을 내밀었다.

“선이 너를 믿고 한 번만 더 외상 약을 지어주마. 하지만 외상은 이것으로 끝이다. 말로 해선 안 될 듯하니 이제 문서로 다 약조를 하자. 각서를 써라.”

“각서요?”

“놀라긴. 다신 우리 약방에서 외상 약을 지어달라 때를 쓰지 않겠다고 써라. 맨 밑에다 네 이름 쓰고 이 붉은 인주로 지장 찍고.”

선은 한숨을 쉬었다. 풋복숭아만 한 몽우리가 생긴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다.

내가 그동안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했구나. 말로 신용을 얻지 못하고 문서로 신용을 구걸해야 하는 지경에 왔구나. 아버지, 아버지, 저 어떡하죠?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에게서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겨우 열네 살밖에 안 된 제가 벌써부터 이렇게 신용을 잃었네요. 어떡하죠?

선이가 눈에 띄게 풀죽은 낫빛으로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자, 김약국은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내가 네 입장을 영판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라고 흠 파서 약을 짓는 게 아니잖니? 당장 이번 달만 하더라도 큰딸 혼사 치러야지, 약방머슴 세경 줘야지, 약초꾼한테 외상값 갚아야지, 돈 나갈 일이 첩첩인지라..... 아이고, 내가 이거, 어린아이 데리고 신세타령을 하다니, 썩.”

김약국이 곰방대를 입에 물고 고개를 돌렸다.

“됐다. 그만 가 보거라. 약 지어놓을 테니 해질녘에 약방머슴한테 받아가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이는 허리를 꺾어 인사하고 뒷걸음질로 약국집을 나왔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외상 약 지어달라고 떼를 쓰느니 하루 종일 빨래를 하는 편이 나았다. 몸이 힘든 것은 하룻밤 폭 자고 나면 풀리지만, 서럽고 불편한 마음은 열 밤을 자고 나도 풀리지 않았다.

각서까지 썼으니 이제 저 약 떨어지면 외상 달라는 말도 못할 텐데. 아, 각서는 내가 쓴 거니까 언니가 가면 되겠다! 아냐. 언니는 안 갈 거야. 못 갈 거야. 언니 성격 알잖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다고 할 걸. 어떡해? 아버지, 어떡해요?

선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안면 있는 떼꾼 둘이 시끄럽게 떠들며 다가왔다. 한양, 경복궁, 목재창고, 큰 불..... 이런 단어가 선이의 귀에 들어왔다. 선이는 쿵광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웃고름으로 양가슴을 지그시 누르고는 떼꾼들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경복궁에서 불났어요?”

“그게 아니고, 목재 창고가 홀랑 타 버렸다지?”

“그, 그럼, 사람이 다, 다치지지는 않았나요?”

선이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다행히 사람은 무사한가 봐. 최상품 황장목이 몽땅 타 버렸지만. 참, 네 아버지도 부역 가셨더랬지? 오랜만에 일 안하고 쉬시겠구나. 목수가 목재 없이 일을 할 순 없으니까, 하하.”

선이는 그제야 웃고름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휴. 십년감수했네요. 정말, 나무가 다 타버렸다니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떼를 보내도 보름은 걸릴 테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대원위대감께서 공사장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진노하셨대. 공사장 감독들이 줄줄이 하옥되었다는군.”

“떼 값이 엄청 올랐겠네요. 아저씨들은 떼돈 많이 버시겠어요, 부러워요.”

떼꾼 둘이 마주 보며 병긋거리고는 어깨동무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내일 떼를 타려고. 내가 앞사공, 이 사람이 뒷사공이지. 새로 임명된 총감독이 대원위대감 눈치 보느라 똥줄이 타나 봐. 사흘 안에 마포나루까지 떼를 운반하면 글쎄, 떼 값을 열 배로 쳐주겠다고 했대.”

“사흘 안에요? 열 배요?”

선이가 눈을 둥그랗게 뜨고 물었다. 떼꾼들이 껄껄, 웃었다.

“사흘 안이면 열 배, 닷새 안이면 다섯 배를 준다는데, 요즘 처럼 물도 많지 않은 때에 그게 가능하겠어? 물고기라면 모를

까, 뗏목이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안 돼, 도무지 말이 안 돼. 소문난 떼꾼이 물이 젖로 많을 때 가도 닻새, 이레, 뭐 그 정도는 통상 잡아먹는다고. 그런데 요즘 같은 강물에 우리 같은 조무래기들이 무슨 수로 사흘 안에 한양 도착을 하겠어? 떼돈 열 배 받으려다가 수십 년 일찍 죽지. 가뜩이나 이무기까지 나댄다는 요런 망측한 시기에 말이야. 아무리 떼꾼이 목숨 걸고 떼돈 버는 직업이라지만, 우린 그 정도 욕심은 내지 않을 작정이야. 그저 안전하게, 보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안전하게 도착해서 늘 받던 대로만 받으면 된다고. 안 그런가. 자네?”

“그럼, 그렇고말고.”

선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불꽃을 밝혔다.





쿠 우오오오오오아!

크으으으으으르르으응!

벌써 두어 시간째, 기이한 울음소리가 아우라지를 뒤흔들었다.

안개 자욱한 그믐밤. 어떤 것도 쉬이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밤.

그런데 밤안개 사이로 희뜩희뜩,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굵디굵고 길디긴 동아줄 같은 것이 제풀에 얹히고설켜선, 세상을 들었다 놓을 듯 요란하게 몸부림을 쳤다.

끝없을 성싶던 울음과 몸부림에 스스로 지쳤는지, 마침내 동아줄의 매듭이 스르르 풀렸다. 풀리고 보니, 굵이굵이 흐르는 은회색 강줄기 모양이다.

“옥황상제님, 굵어 살피소서. 오늘이 아우라지에서 수행한 지 딱 천 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만 승천시켜 주십시오.”

우르르쾅쾅! 파아앙찌러어엉!

천둥이 울린 뒤, 채찍처럼 세찬 비가 내려쳤다. 동아줄이 다시금 꿈틀거렸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룡아, 네가 정녕 승천하고자 하느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무서우면서도 인자하고 성스러운

목소리.

사룡으로 불린 동아줄이 몸을 곳곳이 세웠다.

“예. 옥황상제님. 두 말하면 무엇 합니까? 일룡이, 이룡이, 삼룡이 형님이 모두 승천하고 저 혼자 이 땅에 남아 천 년이나 외로움에 시달리며 도를 닦았습니다. 이만하면 상제님 연못에서 연밥 따먹은 죄는 용서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우둔한 것! 연밥 따먹은 죄는 벌써 다 용서했다. 일룡이, 이룡이, 삼룡이를 승천시켜준 것을 보면 모르느냐? 승천을 약속한 날, 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옥황상제의 음성에 노기가 깃들자, 사룡은 금세 기가 죽었다.

“어라연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다리지 않고 아우라지에서 놀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거 보아라. 용에게는 용의 도가 있느니라. 약속을 지키고 때를 맞추는 것도 용의 도이다. 용이 용의 도를 지키지 않고 도둑질을 하다가 이무기의 몸으로 천 년 동안 어라연에서 수행을 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지. 아우라지에서 장난질하느라 때를 놓쳤으니 어찌겠느냐? 또 천 년 동안 아우라지에서 수행을 할 수밖에.”

“아이고, 상제님. 그럼 이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승천시켜 주시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원래 죄란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벌이 무거워지는 법이다. 법대로 하면 사룡이 너는 이천 년을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오늘 네 태도를 본즉슨 여전히 경망스러워서 미덥지가 않아. 하지만 이무기의 몸을 가지고 천 년 동안 나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내가 잘 알지. 너는 네가 몸담은 동강과 정선 땅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꼈어. 그 점은 나도 기특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 남은 승천의 길을 알려주려 한다.”

사룡의 몸이 통나무처럼 거의 일자로 곧추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곱 가지 인간의 감정, 즉 기쁨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 사랑과 미움과 욕심을 모두 담은 인간의 가락을 찾아라. 그 가락에 네가 수호할 땅의 정기를 엮어 노래하라. 그 노래가 내 귀에 들리는 날, 너는 본디 모습을 찾고 승천하여 네가 사랑하는 땅과 물의 수호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니라.”

상제의 목소리가 비와 안개와 어둠을 빨아들인 듯, 어느새 동녘 하늘에 여명이 희부영게 밝아왔다. 해를 품은 불그스름한 기운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아우라지 강물에 은결을 드리웠다.

이무기는 홍조 띤 새벽 강물 속으로 거대한 몸통이를 감추었다.



서 녘 하늘로 뉘엿뉘엿 해가 진다. 단오가 지나니 해가 확
실히 길어졌다. 하지만 곧 골골살살이 저녁 어스름이 깔릴 것
이고 병든 어머니는 딸 걱정애 속을 태울 것이다. 선이는 김
약국에서 약 꾸러미를 찾아 총총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어. 언니랑
의논해서 어머니는 거짓말로 안심시켜 드려야지. 그나저나 어
머니가 오늘따라 두통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나 약이 올
까 목을 빼고 기다리시겠군. 얼른얼른 가자, 얼른얼른.

아우라지 강변의 풀이 한층 성성하고 질푸르렀다. 이제부터
는 산나물들이 쇠어서 나물죽으로 연명하기도 어렵다.

다른 집들은 논이 있고 밭이 있어서 거기서 갖은 작물이 나
겠지만, 선이네는 땅 한 떼기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묵수 일을 할 때는 그리 궁상스럽지 않게 살림을 꾸
릴 수 있었다. 아버지 없이 살아온 이 년 동안은, 어머니가 두
딸의 혼수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털고 아버지가 쌓아둔
신용에 힘입고 동네사람들의 인정에 호소하여 어찌어찌 버텸
었다.

하지만 더는 안 돼. 내 힘으로 헤쳐 나가야 해.

저녁 강바람이 서늘했다. 이마에 비어져 나온 머리칼이 바람

에 나부끼며 선이의 눈을 찔렀다. 선이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쓸어 올리고는 눈을 꼭 감았다가 떴다. 뺨바닥이 홍등처럼 붉고 환한 딱새가 굴참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딱새야.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딱새가 포르르 날아올라 선이의 머리 위를 빙빙 돌다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나, 떼를 타 볼까 해.”

딱새가 빠리빠리, 울었다.

“응? 뭐라고? 여자는 태워주지 않을 거라고? 그거야 당연하지. 여자는 재수 없다고 뗏목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 하게 하니까.”

선이가 입술을 앙다물었다간 주먹을 흔들었다.

“하지만 여자가 왜 재수 없어? 여자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여자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뭐? 우리 아버진 나한테 글도 가르쳐 주시고 묵수 일도 가르쳐 주셨어. 여자라고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어.”

딱새가 뽀로뽀로, 울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제법 사내아이 같지 않아? 헤헤. 사내처럼 옷을 입어도 썩 잘 어울리겠지? 우리 어머니랑 언니가 매일 나보고 사내아이 같다, 사내아이 같다, 하거든. 하아.....”

애써 웃으며 말은 해도, 선이 역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골이 난 떼꾼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

을까? 줄배는 타 보았지만 뗏목이라곤 타 본 적도 없는 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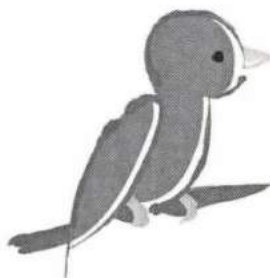
“그치? 딱새야. 나, 할 수 있지? 작년에 우리 집 노간주나무
에다가 너희 가족이 둥지를 틀었는데, 태풍이 둥지를 싹 쓸어
가 버렸잖아. 그때 내가 톱으로 나무 잘라서 멋진 새 둥지를
만들어줬던 거, 기억하지? 우리 어머니가 막 화냈잖아. 여자
아이가 쓸데없이 나댄다고. 하지만 난 잘해냈잖아. 난, 맘먹고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딱새가 빠리빠리, 뽀로뽀로, 울었다.

소 한 마리는 거뜰히 살 수 있다는 떼돈을, 그 떼돈의 열 배
를 받는다면..... 김약국 집 외상값부터 갚아야지. 동네에 빚
진 양식도 갚고, 어머니한테 쌀밥 해드리고 고깃국 끓여드리
고, 언니한테 예쁜 옷감도 사주고, 밭도 좀 살 수 있을까? 감
자랑 고구마, 심어먹을 수 있게.

가야 돼. 가서 떼돈도 벌고 아버지도 만나고, 가야 돼. 누가
뭐래도 가야 돼.

딱새가 날개를 펼치고 포르르, 질어가는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다 녀왔어요, 어머니.”

선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윗목에 약 꾸러미를 내려놓았다. 정이가 둥글넓적한 대야의 찬물에 수건을 적셨다가 꼭 짜서 어머니의 이마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선이..... 우리 선이, 왔니?”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선이는 목이 메는 것을 억지로 참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함, 졸려.”

“우리 작은딸이 하루 종일 종종거리느라 많이 힘들었던 모양 이구나.”

“아니예요, 어머니. 제가 얼른 약 달여 올게요. 김약국네 약이 우리 어머니 두통에는 직방이잖아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선이는 정이에게 몰래 따라 나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정이가 마당에다 대야의 물을 버리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선이는 아궁이 앞에 앉은 채로 눈을 들어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언니, 나 한양 갈 거야.”

정이가 걸음을 딱 멈추고 눈살을 찌푸렸다.

“한양?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그 멀고 먼 한양 땅엘 간다는 거야? 아버지 만나러? 아버지 만나서 모셔오려고? 딸이 찾아가면 나라에서 아버지를 그냥 보내준대?”

“그게 아니라..... 나, 떼를 운반할 거야.”

정이의 눈동자가 화등잔처럼 커졌다.

“선이야.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떼를 운반해?”

“언니. 내 말 잘 들어. 내가 떼꾼이 돼서 보통 떼돈의 열 배를 벌어들게.”

“애가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선이 넌 총각아이도 아니고 여자아이이면서 무슨 수로 떼를 탄단 말이야?”

“사내가 별 거야? 사내 옷 입고 사내 흉내 내면 되지. 언니가 나보고 늘 사내아이 같다고 놀렸잖아. 사내아이 옷을 입으면 제법 사내 같아 보일 거야. 그치?”

정이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오고 맥이 빠져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선이야. 언니가 미안하다. 못나빠진 언니가 총각이나 만나려 다니는 꼴이 오죽 보기 딱했으면, 어린 네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다했을까. 언니가 내일 당장 남의 집 종살이라도 알아보마.”

정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언니 뚝! 울지 마. 운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라도 있음 얘기해봐. 응? 어머니 눈물 많은 거, 언니가 쓱 빼닮았나보다.”

선이는, 언니를 설득하려면 오늘밤을 새워도 모자라겠구나,

생각하곤 한숨을 쉬었다. 일단 어머니 약부터 달여야 했다. 부지깽이로 아궁이를 들쭉서 불이 너무 팔지 않게 조절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이는 옷궤에 고이 넣어뒀던 아버지 옷을 꺼냈다. 부스럭대는 소리에 잠에서 깬 어머니가 정이에 게 물었다.

“애야. 갑자기 아버지 옷은 왜 꺼내니?”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데, 옷이 다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오시기 전에 깨끗이 빨아 풀해놓으려고요.”

“몸은 성하시든?”

“예. 췌끔, 아주 췌끔 수척해 보이셨어요.”

어머니가 끄, 하고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내 꿈에선 아리랑을 부르시던데?”

정이는 혹시 어머니가 제 거짓말을 알아챘나 싶어 가슴이 덜컥했다.

“제, 제 꿈에서도요. 우리 아버지가 워, 원래 아리랑 잘 부르시잖아요. 기분 좋을 때도 부르시고 슬플 때도 부르시고 힘들 때도 부르시고.....”

“그런데 네 눈이 왜 그리 빨개? 잠을 못 잤냐?”

정이는 급히 눈길을 돌렸다.

“아니요. 아주, 폭, 잘 잤어요.”

어머니가 혀를 찼다.

“쫓쫓. 아버지 꿈꾸고는 우느라 잠을 못 잤구나. 나도 더러 그랬느니라.”

사실은 얼토당토않은 선이의 계획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느라 밤을 꼰딱 새웠다. 언제나 그랬듯 정이는 선이를 이기지 못했다. 끝까지 반대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기도 했다. 인정 많은 월천 아주머니도 요새는 눈치가 달랐다. 약국집에서 각서까지 썼다니 더군다나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선이를 도와주기로 하고 선이가 입을 납자 옷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었다. 바느질 솜씨는 정이가 선이보다 나았다.

정이는 아버지의 옷을 가슴에 살며시 품어보았다. 그리운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았다.



“나 랑 너랑 아기 때 쓰던 기저귀감이래.”

“똥도 묻고 오줌도 묻었던 천이겠네?”

“그러럼. 엄청나게 많이 묻었더랬지. 가만있어 봐. 너무 꼭

묶으면 답답하겠지?”

정이는 너무 낡아 누레진 광목을 선이의 가슴에 돌돌 감았다. 봉긋이 부푼 가슴이 납작, 찌그러들었다.

“내가 재주껏 고치느라고 고쳤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다.”

정이가 품과 기장을 줄인 아버지 옷을 보자기에서 꺼냈다. 선이는 입고 있던 치마저고리를 훌렁훌렁 벗고 아버지의 바지저고리를 입어보았다. 대강은 맞는데 어깨와 허리 부분이 여전히 헐렁했다.

“우리 선이, 하는 짓만 사내아이 같지. 이렇게 여위어서야 떼를 어떻게 타.....”

정이는 또 한바탕 눈물을 흘릴 기세로 입을 삐죽거렸다.

“언니, 언제까지 울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어떡하든 돈도 벌고 아버지도 모셔올 테니까, 언니는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내가 떼돈 벌어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만 잘 모시고 있음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선이 너,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순순히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래서 내일 새벽에 몰래 나가려고. 언니가 잘 대처해야 해. 구절리 김참봉댁 맏며느님이 시집온 지 일 년 만에 한양 친정으로 근친 가신다는 얘긴 어머니도 아시잖아. 근친 행차에 며느님 시중들고 소설책 읽어드릴 민첩한 계집아이를 급구한다기에 어머니께 인사드릴 여유도 없이 떠났다고 말씀드리줘. 돈 벌어 빚도 갚고 한양 가서 아버지도 만날 수 있겠어서 기어이 갔다고..... 부잣집 맏며느님 근친 행차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넉넉하고 가마꾼도 댓 명이나 되니 조금도 걱정하시지 말라고.....”

선이는 내친 김에 땀기를 풀어 머리채를 흘뜨렸다. 손가락빛으로 머리채를 정수리 위로 뽁뽁 틀어 올리고 이마에 무명 머리띠를 척 동여매었다.

“어때? 내가 유천리 총각보다 더 잘났지?”

선이는 별안간 씩 웃으며 정이의 소맷부리를 잡아당겼다.

수수발 삼발을 다 지내놓고서

뽁뽁한 잔디밭에서 왜 이렇게 졸라

“언니, 유천리 총각도 언니한테 이렇게 바보같이 졸라대?”

선이가 유천리 총각 흉내를 내며 지분거렸다. 정이가 눈을 흘기며 선이의 등짝을 내려치려 했다.

“선이 너, 언니를 갖고 놀아?”

선이는 껌싸게 윗목으로, 헛대 아래로, 지게문 앞으로,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날 따라오게 날 따라오게 날 따라오게

잔솔밭 중허리로 날 따라오게

요놈의 총각아 치마꼬리를 놓아라

당사실로 금친 치마 콩 피듯 한다

“요 녀석이? 선이 너, 이리 안 와? 잡히기만 해 봐라. 가만 안 놔둘 거야.”

정이가 제 판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뒤따랐지만 선이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요놈의 총각아 내 손목을 놓아라
물거품 같은 요내 손목이 얼그러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선이는 지게문을 열고 짚신을 발끝에 걸치곤 집 앞 솔수평이로 달려갔다. 정이는 씩씩거리며 섬돌에 주저앉았다.

“계집아이가 날래기도 하지..... 우리 선이는 잘해낼 거야.”

정이의 눈망울에 이슬이 맺혔다.

선이가 뛰어 들어가자, 풀잎 끝에 앉아 졸던 나비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고 다람쥐, 청설모, 토끼 떼가 선이를 따라 뛰었다.

“나, 어때? 쓸 만한 총각아이 같아?”

선이가 원다리를 들어 허공을 두어 번 차며 물었다.

“바지를 입으니까 편하긴 하다.....”

선이는 소나무 그늘 아래 별러덩, 드러누웠다. 소나무 우듬지 위로 하늘이 파랬다. 드문드문 피어오르는 흰 구름이 산수국 꽃송이처럼 보슬보슬했지만, 선이의 마음속에서는 근심걱정이

거무스름한 버섯구름을 몽글몽글 피워 올렸다.

.....들켜서 혼나면 어떡하지?

.....관아에 잡혀가서 옥살이 하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관둘까?

털빛이 눈처럼 흰 옥토끼 한 마리가 선이의 배 위로 폴짝, 올라앉았다. 옥토끼가 선이의 가슴에 귀를 대고 선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듯, 가만히 었드렸다.

선이는 두근거리던 심장이 시나브로 고요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선이는 손을 들어 옥토끼의 보드라운 털을 쓰다듬었다.

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 난 할 수 있어.



태 곳적 동굴이나 연못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을 물줄기가
침침산중 굽이굽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사철 마르는 일 없
이 맑디맑게 흐르는 곳, 정선. 그 중에서 물소리가 쿵쿵 세차
고 물살이 빨라 남자의 강으로 불리는 송천, 졸졸 흐르는 물
이 부드럽고 정감 있어 여자의 강이라 불리는 골지천, 두 갈
래 물이 만나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아우라지다.

열브스름한 햇귀가 검푸른 밤기운을 채 거뒀가지 못한 어둑

새벽, 아우라지 나루터에서는 목상 지씨가 십 년 이상 폐밥을 먹은 노련한 폐꾼들을 모아놓고 속내를 떠보고 있었다.

“어이, 김덕만이. 자네가 한번 해보지? 십오 년 폐꾼질에 황새여울, 된꼬까리에서 돼지우리²⁾ 한 번 치지 않은 실력이면, 사흘은 무리여도 닳새는 가능하지 않을까? 닳새만 해도 다섯 배를 얻어준다는데, 어떤가?”

김덕만이라 불린 폐꾼이 손사래를 쳤다.

“아서요, 장마철도 아니고 봄 강물에 무슨 수로 닳새 안에 갇니까? 닳새 안에 가면 그게 귀신이지 사람인가? 안 그래, 송수동이?”

“암만. 두 말하면 잔소리지.”

송수동이라 불린 이가 큰소리로 대답하며 체머리를 흔들었다. 지씨는 둘러선 폐꾼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었다. 그들 모두 눈빛이나 고갯짓으로 김덕만, 송수동에게 동의하고 있었다.

지씨는 찻, 입맛을 다셨다. 사흘 안, 닳새 안에 폐를 운반하면 자신에게도 평시보다 열 배, 다섯 배의 수익이 떨어지는 터라, 폐꾼들이 목숨 걸고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사정을 그 또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에 금세 체념했다.

그때, 자그마한 총각아이가 제비처럼 날랜 걸음새로 목상 앞에 나섰다. 그가 옆에 있는 줄도 몰랐던 폐꾼들이, 이건 또 뭐야, 구시렁거렸다.

2) 폐가 바위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모습을 가리켜 ‘돼지우리 친다’고 함.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흘 안에 한양까지 떼를 운반하겠습니다.”

여자처럼 아리잠직한 체구의 총각아이가 당찬 목소리로 말했다. 떼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곧바로 웃음을 터트렸다.

“이봐, 총각. 돈에 눈멀어 떼 탔다가 제명에 못 죽은 초짜들이 한둘이 아니라네. 일찌감치 명부에 가고 싶지 않으면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는 게 좋을 거야.”

“어이, 예쁜 총각, 주막에 가서 색시들 심부름이나 하셔. 색시들이 귀여워해줄 거야. 용돈도 듬뿍듬뿍 줄 테고. 아무렴 떼 타는 거보다야 그쪽이 더 쓸쓸하겠지? 킬킬.”

“아하하. 그렇게 말이야. 이보게, 총각아, 떼는 뭐 자네 혼자 타는 건 줄 알아? 누가 자네 같이 꾀내 나는 초짜랑 떼를 타려고 하겠어? 아, 혹시 모르지. 마누라 없는, 저기 저, 황서방은 같이 타줄지. 어이, 황서방, 어때? 생각 있어?”

황서방이라 불린, 구레나룻이 시커먼 사내가 너털웃음을 웃으며 대꾸했다.

“허, 그것 참. 사내자식이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네그려. 남사당패를 하면 색시 역은 따 놓은 당상이겠어. 으하하하.”

떼꾼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이어지자, 선이가 발끈했다.

“혼자서라도 가겠어요! 가겠다고요!”

혼자서 떼를 타겠다고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떼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녀석이잖아, 이거 어디서 굴러온 개뾰다귀야, 하는 얼굴로 떼꾼들이 낯빛을 일그러뜨렸다. 여차하면 달려들어 두드려 패기라도 할 기세였다. 언제 죽을지 모

르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지라 떼꾼들은 동료의식이 큰 대신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도 컸다.

지켜보던 목상 지씨가 입을 떼었다.

“자네, 이 근방에서 한 번도 못 본 총각인데 어디 출신인가?”
선이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저, 워, 원래는 삼척 출신이라는데, 부모 잃고 소금장수 손에 이리저리 떠돌다가, 평창에도 갔다가 울진에도 갔다가 저, 정선으로.....”

송수동이란 자가 선이에게 달려들어 먹살을 움켜잡았다.

“근본이 의심스러운 놈이네, 이거. 혹시 목상 어르신한테 여비만 받아 챙기고 떼는 중간상인한테 팔아먹는 떼 도둑놈 아니야? 응? 도둑놈 아니냐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이는 송수동에게 먹살이 잡힌 채 당황하여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떼에 대해 뭇도 모르는 녀석이 무슨 생각으로 사흘 안 한양 도착을 하겠다고 허언을 했느냐? 한 번이라도 떼를 타 본 적이냐 있었더냐?”

목상 지씨의 나지막한 음성에 노기가 깔려 있었다. 선이는 송수동의 손아귀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떡해, 어떡해..... 떼를 타기도 전에 쫓겨나겠어.

그때였다.

“이봐!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한참 찾았잖아.”

어디선가 나타난 사내가 장롱에서 옷 꺼내듯 송수동의 손아귀에서 선이를 달랑, 들어내었다. 사내는 어떤 때꾼보다 크고 건장한 몸을 하고 있었다. 어글어글 잘생긴 이목구비도 시선을 끌었다. 송수동은 귀신에게 홀린 듯, 제 빈 손과 사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금껏 팔씨름으로는 누구한테도 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손아귀 힘이 센 그였기에 충격이 컸다.

“목상 어르신, 소인은 영월 사람으로 떼는 오 년을 탔습니다. 비록 십 년 때꾼의 경험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힘이 좋고 물길을 잘 안다는 말을 들었습지요. 이 총각아이 또한 떼를 탄 경험은 없어도 물과 친하고 소인과 호흡이 잘 맞습니다. 소인이 앞사공으로 물말기를 타고 이 총각아이가 뒷사공으로 제 보조를 맞춘다면, 사흘 안 한양 도착도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희 두 사람에게 떼를 맡겨주십시오.”

지씨가 큼큼, 목을 고른 뒤, 말했다.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에 무얼 믿고?”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혹 믿어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소인이 떼를 타고 아우라지에서 한 바탕 미육한 재주를 선보일까 합니다.”

지씨가 그러라는 뜻으로, 팔을 들어 강물 쪽으로 뻗었다. 떼는 침줄과 새끼줄로 소나무 스무 개 정도를 엮어 한 동으로 삼고 이것을 또 다섯 동 내외로 묶어 한 바닥을 만들었다. 그 레³⁾가 떼 위에 놓여 있었다.

3) 뗏목을 물 때, '노'처럼 이용하는 도구.

사내는, 물 위로 솟구치는 돌고래처럼 휘영청 나루에서 뛰어 올라, 붉은 해당화 꽃잎에 내려앉는 푸른부전나비처럼 가볍게 뗏목 위에 올라탔다. 떼꾼들의 눈길이 지씨의 팔뚝을 떠나 사내에게로 옮겨졌다.

그레질을 하는 사내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심지어는 강릉 기생의 춤사위처럼 아름다웠다. 뗏목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로 옮겨가며 기기묘묘한 걸음새로 중심을 잡을 때는, 말을 타고 마상술을 부리는 사람 같기도 했다.

떼꾼들은 말을 잃었다. 선이 역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윽고 지씨가 침묵을 깼다.

“자네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천가입니다. 이름은 용이고요. 천용입지요.”

“그래, 용이. 인연을 맺게 되어 반가우이. 사흘 안이 어렵거든 닷새 안에라도 어떻게 해보게나.”



아 우라지 나루터에, 돼지머리를 한가운데 두고 고사리나물, 곤드레나물, 호박나물 각 한 접시, 메 세 그릇, 포 하나, 빨갛고 파랗고 허연 실타래를 놓은 고사 상이 차려졌다.

아낙네들은 음식만 해다 바치고 자리를 떠나야 했다. 떼꾼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타작마당에 날라드는 참새 쫓듯, 휘이휘이, 아낙네들을 몰아냈다. 강치성 드리는 자리에 여자가 있으면 부정을 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선이는 그 모습이 좀 웃겼다.

‘그렇담 음식도 남자들이 마련할 일이지. 음식은 여자 손으로 만들게 하고 제사 드릴 땐 부정 탄다고 쫓아내고, 웃겨. 나도 여잔데..... 아냐. 지금부터 남자야. 실수하면 안 돼.’

제관으로서 두루마기까지 정식으로 갖추 입은 지씨가 고사상 앞에 섰다.

“폐를 타기 전에는 이 강치성을 지극정성으로 올려야 해. 안그럼 물귀신이 잡아간다고. 어찌면 장서방처럼 이무기 밥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야. 몸가짐 바로 하고 마음가짐은 더더욱 똑바로 하게들.”

선이와 용이는 지씨가 시키는 대로 옷깃을 여미고 바지춤을 추스른 후, 얇전히 절을 했다. 지씨가 여러 번 목을 고르고 제문을 읽었다.

“유세차 불계부정 택일하여 홍동백서 좌포우혜 외적내통 진설하고 소질발원 하나이다. 동해갑을 용왕신 남방병정 용왕신 서방경신 용왕신 북방임계 용왕신 소례로 드린 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아우라지를 출발하니 아우라지 밑 상투비리..... 여울여울 굽이지나 무사하강을 비나이다. 무사하강을 비나이다.”

지씨 집 머슴이 들고 있던 불붙은 나무꼬챙이를 지씨 쪽으로 기울였다. 지씨가 다 읽은 제문을 그 불에 태워 바람에 날렸다.

“자, 강치성도 올랐으니 이제 출발하세. 한시가 급하네. 우선 이걸 받게.”

지씨가 용이에게 재목의 이름과 숫자가 적힌 발기와 여비가 든 광목주머니를 건넸다.

“가는 길 곳곳에서 생떼 부리는 나졸 패거리한테는 파리 밥 던져주고, 떼 잘 내려가라고 물길 파놓은 사람들에게는 골세, 잘 챙겨주게나. 돈 때문에 시간 뺏기지 않게끔 두둑히 넣었으니, 알아서 잘 처신하게.”

“네, 알겠습니다.”

용이는 능숙한 솜씨로 떼 위에 깔판을 깔고 밥 지어 먹을 화덕을 실었다. 선이도 용이를 도와 양식과 찬거리를 날랐다. 떼를 타보기는커녕 바로 앞에서 보는 것도 처음인 선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이 떼를 타고 한양으로 가는 거야. 꼭 사흘 안에 도착해서 아버지도 뵈고 떼돈도 벌어야지. 용이라는 저 남자,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한테는 은인이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이를 도와 한양에 가는 거야.’



창 칼을 세워놓은 듯 둥글뾰죽한 정선의 산들이 얹히고설켜 선이와 용이가 탄 뗏목의 좌우와 앞뒤를 호위했다. 들에서 보는 산과 떼를 타고 보는 산이 달랐다. 산에 몸을 맡기고 산의 품을 따라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 떼, 떼에 몸을 맡긴 인간.....

용이는 여울도 두려워하지 않고 암초에도 부딪히지 않고 돼지우리도 치지 않으면서 능수능란하게 떼를 다루었다. 그를 바라보며 말 붙일 기회만 노리던 선이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저..... 저기 형님. 저는 선이, 아니아니, 선우라고 하는데요.....”

“오, 그래, 선우.”

큰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선이를 돌아보며 싱긋 웃는 품은 장난꾸러기 어린아이 같다.

“아, 저, 그게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젠 목상도 떼꾼도 없고 하니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님은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시고 저를 언제 보았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저야 형님 덕에 떼를 탔으니 고맙기는 하지만,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네요.”

용이는 피식, 웃고 묵묵히 그레질만 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선이가 아니다.

“형니이이이이임!”

“그야 나도 떼를 타야 하니..... 서로 도우면 좋지 아니한가.”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선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형님, 저는 정선 땅 여량리에 살아요. 형님은 영월 분이시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늘 앓으시고 아버지는 경북궁 짓는 곳에 부역 가셨어요. 이번에 한양 가면 경북궁 공사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려고요. 형제는 많으신가요? 저는 형제 많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언니, 아니아니, 누님 하나밖에 없거든요.”

용이는 선이의 질문 세례에 싱긋 웃기만 할 뿐, 입을 떼지 않았다. 선이도 입을 다물었다. 말을 많이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가 반복되면 필경은 제가 여자라는 사실도 제 입으로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조심! 또 조심!’

깎아지른 기암절벽이 맑고 푸른 동강 물결에 비쳐 열두 폭 병풍을 펼쳐놓은 듯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언제까지고 떼에 앉아 그 풍경만을 바라보는 일은 금세 지루해졌다. 선이는 결국 강물 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들에게 인사를 했다.

“어름치야, 금강모치야, 안녕? 난 떼돈도 벌고 아버지도 만나러 한양 가는데, 너희는 어딜 그렇게 바빠 가니? 응? 조금만 더 가면 황새여울이라고? 조심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조심

할게. 너희들도 도와줘야 해. 나, 말이야. 이상도 하지? 때를 타기 전에는 심장이 두 근 반 세 근 반 마구 뛰었는데 막상 타고 나니 황새여울도 안 두려운 거야. 저렇게 듻직한 형님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

뒤통수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선이는 뒤를 돌아보았다. 용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입이 심심해서 이러는 거니까.”

“심심하면 노래나 한 자락 해 보든지.”

“그럴까요? 정선 사람이야 죽으나 사나 아리랑이지요.”

“죽으나 사나? 기뻐도 슬퍼도?”

“그렇죠.”

“성날 때나 무서울 때도?”

“예.”

“누가 미울 때도?”

“당연하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도?”

“그럼요.”

“좋아. 아리랑 한 자락 불러보렴.”

“떼꾼 집 아줌마들이 부르는 아리랑, 불러볼게요.”

뚝 떠나갑시다 뚝 떠나갑시다

용산삼개 배 떠나가듯이 뚝 떠나갑시다

뗏사공이 되려는 가시면 못 오나
물 위에 흰 구름 뜨듯이 동실동실 떠가네

우리 집의 서방님은 떼를 타고 가셨는데
황새여울 된꼬까리 무사히 다녀가셨나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뜬구름만 흘러도
팔당주막 들병장수(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술을 파는 여자)
야 술판 벌여 놓아라

술 잘 먹고 돈 잘 쓸 적엔 금수강산이더니
술 못 먹고 돈 떨어지니 적막강산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남자들은 참 이상해요. 여자들은 떼도 못 타게 하고 강치성
할 때 곁에도 못 오게 하면서, 웬 들병장수는 그렇게들 찾는
대요? 들병장수는 여자 아닌가, 뭐. 그리고 처자식이 배끓으
며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목숨 걸고 번 떼돈
을 왜 술집에다 몽땅 갖다 바친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뭐?”

“에이, 못 들은 척하긴. 같은 남자라고 남자들 편드시네.”

“그런가?”

용이는 건성으로 대꾸했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몽롱한 목소리였다.

사실 용이는, 본래 사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용이었으되 오래도록 이무기의 몸을 하고 살아온 그는, 얼마 전 아우라지에서 들은 옥황상제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다.

일곱 가지 인간의 감정, 즉 기쁨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 사랑과 미움과 욕심을 모두 담은 인간의 가락을 찾아라. 그 가락에 네가 수호할 땅의 정기를 얹어 노래하라. 그 노래가 내 귀에 들리는 날. 너는 본디 모습을 찾고 승천하여 내가 사랑하는 땅과 물의 수호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런데 선이의 노래가 인간의 감정을 모두 담은, 바로 그 가락 같았다.

이 가락에 정선의 정기를 얹어 노래하면, 승천하여 동강의 수호신이 될 수 있을까.

네 마리 형제 중 유일하게 승천하지 못하고 동강에 몸을 숨기고 살아온 1000년 세월. 그 사이 자연의 수호령이 깃든 영험한 동물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져만 갔다. 호랑이도 곰도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모두 수호령을 사냥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못된 엽령꾼의 짓이었다. 사룡은 엽령꾼을 피해 나비, 사슴벌레, 물고기, 벌 따위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숨어살기 바빴다.

나비로 변신하여 팔랑팔랑 날아다니던 어느 봄날, 사룡은 여

량리 솔수평이 근처에서 선이를 처음 만났다.

“작은주홍부전나비아, 안녕?”

무수한 소녀를 만났지만, 자신이 둔갑한 나비의 이름을 똑똑히 부르며 인사하는 소녀는 난생처음이었다. 사룡은 너무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 걸핏하면 소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소녀는 나비뿐만 아니라 정선 땅과 동강에 사는 수많은 동식물과 대화를 했다.

“파랑새야, 오늘따라 파랑 빛깔이 더 예쁘네? 앗, 검독수리도 왔구나.”

소녀가 가끔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가락들도 사룡의 가슴을 울렸다. 사룡은 이 소녀의 도움을 받으면 상제가 알려준 승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부단히 소녀의 주위를 얼쩡거렸다. 그러다 남장을 하고 떼꾼을 지원한 선이가 우락부락한 떼꾼들 앞에서 큰 곤욕을 치를 위기에 처하자, 늑름한 앞사공으로 변신하여 선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실 거야. 어머니를 당신 목숨처럼 아끼셨으니까..... 형님! 형님?”

선이가 용이를 불렀다.

“으..... 응?”

용이가 허리를 곧추세우고 고개를 돌렸다.

“형님도 떼돈 벌어서 들병장수나 술집 색시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응? 응!”

용이의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 퍼졌다. 겨드랑이에 용 비늘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돋았기 때문이다.
아리랑의 힘인가? 소녀의 힘인가?



황 새여울이 가까워오는지 물살이 점점 세졌다. 그럴수록 용이는 떼와 한 몸이 된 듯 물말기를 잘 잡아 물살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물살을 거슬러 휘어잡기도 했다.

“선우야, 물살이 세다. 강다리⁴⁾ 들어라!”

“네? 네!”

“선우야, 밑에 바위 있다. 돼지우리 치지 않게 사알살, 오옷차!”

선이는 강다리를 들어 떼의 방향을 조절했다가, 떼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레를 떼 밑에 넣고 들썹거렸다. 이마와 콧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가수리에 이르자, 물의 양이 두 배로 불었다. 떼에 속도가 붙었다.

“용이 형님, 진짜로 귀신같이 물길을 잘 아시네요.”

“그거야 내가 귀신이니까. 휘이이이이잉. 무섭지?”

“뭐라고요? 사람 놀리셔. 에잇!”

4) 뗏목에서 ‘그레’를 걸기 위한 가위다리 모양의 도구.

선이는 장난삼아 손바닥으로 강물을 떠서 용이 쪽으로 튕겼다. 용이가 입은 흰 무명바지의 허벅지 쪽이 물에 젖었다. 물에 젖은 부분은 순식간에 꺼무스름한 빛깔로 변했다.

“어머, 형님, 다리 다치셨어요?”

선이가 무릎걸음으로 용이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저리 못 가?”

용이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깜짝 놀란 선이의 목이 자라처럼 움츠러들었다.

“한 번만 더 그런 장난을 치면 다음 나루터에 너를 내려놓고 갈 것이다. 알겠느냐?”

용이의 표정과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선이는 그 정도 장난도 받아주지 않고 너무 심하게 야단치는 용이의 태도가 어이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조건 빌었다. 한양에 가려면 어쩔 수 없었다.

입 다물고 그레질만 열심히 하다 보니 시장기가 찾아왔다. 선이는 감자구력을 꺼내 찢 감자를 꺼냈다. 선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용이를 불렀다.

“저어, 형님. 형님도 좀 드시지요. 아까 새벽에 아우라지에서 채겨온 건데, 뜨듯하진 않아도 냄새가 구수하네요.”

“난 안 먹는다. 너나 많이 먹어두어라.”

용이는 딱 잘라 거절했다. 선이는 용이가 무얼 먹고 그런 힘을 내는지 궁금했다.

역시 사내라서 그런 걸까. 사내라서 안 먹어도 힘이 펄펄 넘

치는 걸까.

아냐, 우리 아버지는 밥심으로 일한다고, 밥 안 먹고는 일 못한다고 하셨는데?

선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말고 기어코 입을 뗐다.

“형님, 형님은 안 먹어도 힘이 막 생겨요?”

“하하, 나도 너와 다름없어. 단지 지금은 그리 배가 고프지 않은 것뿐이니, 남의 사정은 그만 캐묻고 어서 먹기나 해.”



“**밀**장이 수상해.”

“밀장이요? 어떻게요?”

용이는 선이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고 강변에 떼를 뒀다. 아
니나 다를까 떼의 밀장이 후줄근하니 풀려 있었다.

“형님, 어찌죠?”

“아까 암초에 긁힌 모양이다. 미리 알아채서 다행이야. 이런
떼로는 황새여울에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지.”

용이는 이런 일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던 칠닝쿨로 나뭇동을
새로 푹푹 얹어매고 동여맸다. 선이도 서투른 솜씨나마 용이
를 도왔다. 손바닥에 꽤 깊은 생채기가 났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이제 곧 황새여울이야. 동강, 서강에서 내려온 물귀신들이 여기서 뭉쳐 하나로 일어서지. 조심해야 해. 일단 오늘은 해가 졌으니 자고 일어나 내일 출발하기로 하자.”

“네, 형님.”

이때, 뒤따라오던 떼꾼 일행이 강변에 자기네 떼를 뒀다.

“어이, 총각들. 비상용 침낭쿨 좀 빌려줄 수 없나? 우리 건 잃어버려서 말이야.”

“여기 있습니다.”

용이가 남은 침낭쿨을 뒷 뗏목으로 획, 던져주었다. 뒷 뗏목의 앞사공 이씨가 코를 별름거리며 선이에게 농담을 던졌다.

“예쁜 총각, 덕포 주막에 들르면 색시들이 엄청 따르겠어.”

선이는 대답하지 않고 콧등을 찡그리며 기분 나쁜 티를 냈다. 이씨가 서둘러 변명을 했다.

“어, 미안, 미안. 그저 자나 깨나 물 조심, 사람 조심하란 얘기야. 오죽하면 주막 색시들을 떼벌레라 부르겠나? 잘못 걸리면 목숨 걸고 번 떼돈, 다 털리니까 조심하는 게 상책이지. 그리고 요즘 이무기가 사람 잡는다는 소문이 있어. 이무기란 놈은 옛날부터 잘생긴 젊은이들을 좋아한다잖아. 조심하라고.”

이무기한테 물려 죽었다는 장서방과 서럽게 울던 그의 가족들이 떠올라 선이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맞아요. 이무기를 만날까 겁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아저씨도 물 조심, 사람 조심, 이무기 조심! 잊지 마세요.”

다 음날, 첩첩산중 너머에서 겨울 홍시 빛깔로 돌아오는 새벽 여명에 용이는 잠을 깼다. 선이는 몸뚱이를 새우처럼 웅송그린 채 단잠에 빠져 있었다. 별빛이 아른거리는 말간 뺨, 밤하늘이 스며든 듯 검푸른 귀밑머리..... 떼를 타기에는 너무 어리고 여린 소녀였다.

용이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선이를 깨웠다.

“선우야, 일어나라.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사흘 안 한양 도착은 불가능하다.”

선이가 벌에 쏘인 사람처럼 후다닥 일어났다.

“네? 네..... 형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선이는 잠이 덜 깨 부스스한 얼굴로 잠자리를 정리하여 떼에 실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일절 내색하지 않았다.

“이제 곧 황새여울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용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복치마를 휘날리는 귀신처럼 히죽히죽 물이랑이 일어섰다. 별안간 물벼락이 바위덩이처럼 강한 힘으로 선이를 덮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젖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황새여울, 황새여울, 말만 들어봤지, 세상천지에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선이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혀..형님!”

용이는 그레를 쉴 새 없이 놀렸다. 얼굴을 내리치는 물벼락에 선이는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다.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 어머니, 물의 신령님, 도와주세요!

뗏목이 강물 속으로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듯했다. 선이는 한손으로는 그레를, 한손으로는 떼 바닥에 짹짹 얹어매어둔 양식 보따리를 붙들었다. 그 두 가지를 놓치면 곧바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밀려나갈 것 같았다. 그야말로 동강, 서강의 모든 귀신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기세였다.

아, 제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아아아, 죽을 것 같아.

용이 또한 물벼락을 맞고 옷이 흠뻑 젖는 것을 피할 도리는 없었다. 물을 맞은 그의 살갗은 이무기의 검고 차가운 비늘로 덮이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그레질을 하면서도 용이는 끊임없이 선이를 곁눈질했다. 물이야 조금도 두렵지 않았지만, 선이가 목숨을 잃을까 봐, 떼가 부서질까 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선이가 제 정체를 알아챌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선이는 이미 완전히 넋을 놓고 있었다. 그 모양으로도 그레와 양식 보따리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 여울에 휩쓸려 들어갈 위험은 없어 보였다.

“하 아.....”

거짓말처럼 따가운 햇살이 선이의 눈두덩을 찔러댔다. 선이는 긴 신음을 토하며 눈을 떴다. 눈은 잘 떠지지 않았다. 눈알이 불에 탤 듯 따가웠다. 팔뚝과 발목에 군데군데 푸른 멍이 들어 있었다.

“괜찮아?”

용이가 지극히 태연한 모습으로 돌아보며 물었다. 옷차림도, 방금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처럼 말끔했다. 선이는 만신창이가 된 제 꼴을 펴득 살펴보고는 황급히 용이의 시선을 등졌다.

“괘..... 괜찮아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형님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곧 어라연이니 된꼬까리까지는 한숨 돌려도 될 거야.”

“예? 아, 예에에.....”

선이는 용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이의 겹옷은 이미 몸에 착 달라붙어 열네 살 소녀의 흰 속살을 아스라이 드러내고 있었다. 다행히도 몇 겹이나 동여맨 기저귀감 덕분에 가슴의 젖멍울은 보이지 않았다.

선이는 양손으로 겹옷의 물기를 짜거나 털어내며 가능한 한 몸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옷감을 몸에서 떨어뜨렸다.

휴우.....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혀, 형님. 된꼬까리라고요? 된꼬까리도 황새여울처럼 무서운 곳인가요?”

“그럼. 그래도 한 번 된통 겪어봤으니 좀 낫겠지.”

“네, 형님. 어?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떼가 떴내려 와요!”

조각조각으로 부서진 떼였다. 그 뒤로 어제 칠녕쿨을 빌려간 앞사공 이씨가 떼 한 조각을 붙들고 버둥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선이가 손나팔을 만들어 소리쳤다.

“아저씨,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이씨가 발버둥을 쳐 선이의 뗏목 근처로 다가오자, 선이가 팔을 내밀어 이씨를 구해 올렸다.

“아이고, 아이고..... 이무기란 놈이, 이무기란 놈이 우리 뒷사공을 잡아갔구먼. 이제 겨우 스무 살밖에 안 된 새신랑인데. 아이고, 아이고오오오, 이 일을 어찌할꼬.”

이씨는 뗏목에 자리를 잡자마자 목 놓아 울었다.

“뭐라고요? 이무기가 뒷사공 아저씨를 잡아 갔다고요? 용이 형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선이가 깜짝 놀라 호들갑을 떨었다.

“이무기가 뒷사공을 잡아가는 걸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까?”

의구심과 분노가 깔린 목소리로 용이가 물었다.

“아, 그거야 뻔한 일이 아닌가. 큰돌이 소문 못 들었나? 이

황새여울에서 물벼락을 맞고 사라졌더니만 나중에 덕포까지 떠내려 온 시체를 살펴보니까 이무기한테 뜯어 먹힌 자국이 있더라. 그리고 나도 아까, 언뜻 이무기를 봤어. 내 눈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뒷사공을 잡아가더라고. 에고, 무서워.”

용이가 이씨를 노려보았다. 용이의 눈빛에 뱀 특유의 냉기가 서렸다. 이씨는 용이를 마주보다 그 차가운 눈빛에 몸서리를 치며 엉덩방아를 찼었다.

“아니 왜..... 왜 그런 눈으로?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본걸 봤다고 하지!”

용이가 대꾸 없이 계속 자신을 노려보고 서 있자, 이씨는 선이 옆으로 가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앉았다.

용이는 사실 이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에 골똘해 있었다.

나 말고 이 근방에 이무기가 또 있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천 년 동안 없었던 이무기가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어. 누군가 일부러 이무기 흉내를 내며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어. 몇 달 전부터.....



마을 입구 삼백 년 묵은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은 얼굴로 웅성거렸다. .

“아, 글썄, 이놈의 이무기가 말이야.....”

재재거리며 날아가던 참새가, 이무기라는 소리에 날갯을 멈추고 느티나무 잔가지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에구머니나. 무서워서 어떡해.”

“근데 진짜로 이무기 본 사람 있대? 뜬소문 아니고? 아니 웬 이무기가 갑자기 나타났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아님 땅에서 불쑥 솟아올랐어?”

“뜬소문은 무슨..... 윗마을 최씨가 제 눈으로 봤다는데. 그리고 말이야. 일전에 뒷산에 죽어있던 우리 집 염소 있지? 그것도 알고 보니 멧돼지 짓이 아니고 이무기가 물어 죽인거래, 글썄.”

“아, 이무기놈이 김가네 새색시를 놀래켜서 새색시가 자꾸 방구석에 숨고 문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병에 걸렸대.”

“거 참, 희한한 병일세그려.”

“이무기놈이 박서방네 송아지도 잡아먹었다더라마는.”

“이거 고을마다 힘센 청년들 차출해서 그 못된 이무기놈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냐?”

“거, 사람 참. 물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 둔갑술도 있다는 이 무기를 무슨 수로 때려잡아? 이무기가 뭐 호랑이랑 곰 같은 줄 아남?”

용이는 화가 나서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푸드득, 자리를 박차고 날아가 강변의 작은 바위에 내려앉았다.

이런 모함, 누명 씌우기, 낯설지 않아..... 또 엽령꾼인가?

19

어디선가 들어온 한 줄기 희미한 빛살이 뿔죽뿔죽 솟은 수많은 돌고드름, 돌순을 어른어른 비취주는 동굴. 그 킁킁한 벽에 무시무시하게 큰 이무기의 몸통이 얼비쳤다. 그러나 이내 이무기는 한낱 허물로 벗겨 던져지고 이무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괴물이 나타났다.

그는 얼굴이 달걀처럼 둥그렇고 이목구비가 따로 없었다. 둥그런 얼굴 전체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했다. 몸뚱이는 언제든 뽑아 쓸 수 있는, 못, 톱날, 칼, 포탄, 총알, 화살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헤헤. 호당이와 곰도 이던 식으로 모함해서 우매한 인간들이 스스로 잡아 없애게 했지. 멍청한 인간들. 자기네 선조인 곰을 제 손으로 죽이다니..... 우헤헤. 좀만 더 죽여주면 아예 씨를 말릴 수도 있겠어. 이무기, 네 놈도 곧 인간의 손에 죽게

될 거다. 수호명들이 사라진 세상은 영원한 파괴와 혼란의 전쟁터, 바도 내가 만드이어는 세상이지. 헤헤헤. 네놈이 아직도 이곳에 있었을 줄이야..... 1000년 동안이나 끝내지 못한 우리의 관계도 이제야 막을 내디겠구나. 우헤헤헤헤헤.”

무서운 생김새와 달리 그의 목소리는 혀짜래기 꼬마의 그것이었다.

1000년 전, 홀로 승천하지 못한 용이는 3년 3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러다 수호령의 기운을 느끼고 몰려온 엽령꾼과 용이의 처절한 혈전으로 동강은 3개월 3일 동안 붉은 피로 물들었다. 엽령꾼은 정면승부가 힘에 부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3개월 3일 만에 몸을 감추었다. 용이 또한 오랜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때로는 지령이로, 때로는 굼벵이로, 때로는 매미로 둔갑하며 몸을 숨겼다. 이후 엽령꾼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신령스런 존재들을 사냥하며 살아왔고, 용이 또한 희미해져 가는 승천에의 희망을 가슴 한 켠에 묻어두고 동강 주변의 생물로 둔갑을 거듭하며 살아왔다.

엽령꾼은 1000년 동안 인간이 일으킨 전쟁과 파괴의 현장에서 그 폐기물을 먹고 더욱 강해졌다. 그는 태고의 신비가 깃든 정선 동강 지역에서 매우 강한 수호령의 기운을 느끼고 탐색을 거듭하다 한반도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무기를 다시 보았다. 바로 안개 자욱하던 아우라지에서 옥황상제가 용이에게 마지막 남은 승천의 길을 알려주던 그날이었다. 홀로 이무기를 대적할 만한 자신감까지는 없었던 엽령꾼은 다시금 무지

몽매한 인간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무기의 허물을 쓰고 정선 각지에서 온갖 행악을 저지르곤 반드시 이무기의 흔적을 남겼다.

“오, 안 되디, 안 돼. 네놈의 승천을 무슨 수를 써서다도 막아야겠다. 네놈이 승천해서 수호신이 돼버디면,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수호명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깐 마디야.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인간드디 먼저 죽여준다면야 고맙겠지만, 그 멍청한 인간들 힘으로도 네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지는 못할 것 같고..... 나 역시나 네 마지막 숨통은 내가 끊어두고 싶거든. 어찌 됐든 한 번은 만날 이디 있겠군. 기다디고 있으다 고! 우헤헤헤헤헤헤.”

투둑, 투두욱, 텅그르르르, 텅.....

엽령꾼이 몸을 들썩이며 음험한 웃음소리를 낼 때마다, 무기와 폐기물의 결합체인 그의 몸에서 총알이나 못이 튕져나가 종유석과 부딪치며 마찰음을 냈다.



된 꼬까리를 지날 때 정체가 탄로 날까 봐, 용이는 비를 불렀다. 비록 용에서 급수가 한참 떨어져 이무기가 되긴 했으나, 용이에게는 불을 뿜고 비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물론 용 못 된 이무기이다 보니, 자유자재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고 온 마음을 집중하고 기를 모아야만 가능했다.

먹장구름이 해를 가리고 장대비까지 뿌리자, 이씨와 선이는 걱정을 하다 못해 된꼬까리에 닿기도 전에 지레 초주검 상태가 되었다. 용이는 어둠과 빗발 덕분에 강물을 뒤집어쓰고도 이무기의 비늘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된꼬까리를 지나갔다.

선이는 뗏목 아리랑 노랫말의 의미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아, 이래서 어른들이 술집을 찾았구나. 황새여울과 된꼬까리, 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몸은 기진맥진 지치고 마음은 안심이 되어 어디서라도 술 한 잔 받고 사람 소리 들으며 쉬고 싶었던 것이구나.

동강 물길을 따라 경치 좋은 강변마다 주막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색시들이 치맛자락 말아 쥐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자기네 주막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기도 했다. 색시들이 입은 꽃분홍, 자줏빛, 남빛, 옥빛 따위 고운 한복 색깔과 동강의 푸른

물빛이 비단금침에 놓은 자수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행여나 용이와 눈이 마주칠세라 선이 뒤에 숨어 웅송그리고
앉아있던 이씨가, 감히 용이를 쳐다보지는 못하고 입만 붕어
처럼 내밀고 쫓절거렸다.

“이, 이봐, 젊은 양반, 저 좋은 주막은 왜 그냥 지나치는가?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우리 떼꾼들한테는 저기서 손을 나비마
냥 흔들며 아리랑 가락으로 흥을 돋우는 색시들 치마폭이 다
시없는 낙인데 말이야.”

용이가 한심하다는 투로 대꾸했다.

“떼돈이 다섯 배냐, 열 배냐, 하는 마당에 주막에 들를 시간
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막이 좋으시면, 단양나루에서 뗏
목을 세워줄 터이니 소금배를 얻어 타고 돌아가는 길에 들르
세요.”

용이가 왜 그렇게 이씨를 차갑게 대하는지 이유를 알 리 없
는 선이가 미안한 마음에 이씨를 달랬다.

“아저씨,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마포나루에 가야 할 사정이
있어서 정말로, 정말로, 주막 같은 곳에 들를 시간이 없어요.
형님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으셔서..... 예? 뭐라고요?”

이씨가 무슨 말인가를 전하러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병긋거
리다가, 선이가 눈치 없이 되묻자, 얼른 손사래를 치며 눈을
끔벅거렸다.

단양나루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이씨는 용이의 눈치를 보고
눈알을 굴리다 입을 다물곤 했다.

단

양나루에 도착하니 한양에서 온 소금배가 제법 많았다. 이씨는 도망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걸음아 날 살려라, 뗏목에서 내려 소금배로 갈아탔다. 이씨는 자신을 등지고 선 용이의 뒤태를 확인하자마자 선이를 향해 손짓발짓을 하고 입을 병긋거렸다.

총각, 어서 도망쳐! 자네 앞사공이 바로 이무기야. 그놈이 이무기라고!

이씨의 의도를 알 리 없는 선이는 기운차게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이무기도 조심하시고요!”

선이마저 이무기 타령을 하자, 용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으아, 형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앞에서 그레질을 해볼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선이는, 이씨를 소금배에 넘겨주곤 조금도 쉬지 않고 떼를 몰아가는 용이가 안쓰러웠다. 그러나 용이는 들은 체 만 체, 무거운 낮빛으로 떼를 몰 뿐이었다.

형님이 왜 저러시지?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어휴, 잘못했음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냐?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음 나더러 어떡하라고? 답답해 죽겠네. 무슨 사내가 완전 뻔뻔이 소가지

야. 어휴. 밥이나 하자.

선이는 화덕에 불을 넣고 강물을 퍼 올려 쌀을 씻었다. 그때 내내 선이의 뗏목을 따라온 동강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너? 나만 만나면 뱅글뱅글 돌던 그 뱅글이 수달이구나! 어쩔, 정선에서 단양까지 날 따라 온 거야? 응?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따라왔다고? 그래, 잘했어. 기다려봐, 내가 뗏목 위로 올려 줄 테니. 잊차!”

수달은 몸을 흔들어 물기를 털어낸 뒤 기분이 좋은지 선이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다.



선 이와 용이의 뗏목이 남한강 물길 따라 가물가물 사라질 때쯤, 단양나루 소금배에서는 떼꾼 이씨가 침을 튀겨가며 이 무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저 뗏목의 앞사공이 이무기요. 이무기가 사람 형용으로 둔갑한 거라고요. 뒷사공 총각이 참 싹싹하고 참한데, 눈치코치가 영 없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잡수, 하는 꼴이지 뭐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저 뗏목을 따라잡아서 뒷사공 총각을 구해줘야 합니다.”

소금배 선장이 수하 선원에게 말했다.

“이보게,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아까 그 뗏목 앞사공이 이무기라고 합니다.”

“으하하하. 이봐, 때 이른 더위 먹었나? 지금 그 소리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거, 살다, 살다, 별 웃기는 사람 다 보겠네.”

소금배 선원들은 아무도 이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한양에서 온 그들은 이무기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없었다. 잘생기고 예의 바른 앞사공 총각이 이무기라는 얘기도 당연히 미친놈 잠꼬대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아, 진짜라니깐요! 내가 이무기한테 물려죽은 때꾼 큰돌이 얘기를 하니깐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노려보는데 그게 정말로 사람 눈빛이 아니고 뱀의 눈빛이었다고요!”

“이보쇼, 쓸 데 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신 앞일이나 걱정하쇼.”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답답해 죽겠네! 저 예쁜 총각은 이제 어찌나. 아이고, 아이고오오오오오오.....”

이씨는 때에 홀로 남겨진 선이를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에 제 가슴을 아프도록 탕탕, 쳐댔다.

도박 빚 때문에 소금배에서 일하는 왕년의 때꾼 전씨가 이씨에게 다가왔다.

“이보오, 기분도 뻑적지근할 텐데, 투전 놀이나 한 판 합시다. 골치 아플 때는 그저 노름이 최고 아니겠소?”



선 이와 용이의 뗏목은 다리미로 다린 듯 고요한 남한강 물길에, 구름에 달 가듯, 유유히 흘러갔다. 솔뚜껑이 들썩거리며 밥물과 김을 쿵럭쿵럭, 토해냈다. 선이는 뚜껑을 살짝 걸쳐 놓고 뜸이 지기를 기다렸다. 밥 냄새가 구수했다. 모처럼 마음이 편안해진 선이가 밥을 그릇에 퍼 담으며 말했다.

“형님, 배고프시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요. 전 뭐, 아직 금강산 구경은 못해봤지만, 아무리 일이 중해도 밥은 먹고 하라는 뜻 아닐까요? 어쨌든, 잠깐 떼 좀 세우고 밥 한 술 드시지요, 뭐.”

“너나 먹어. 난 이거면 되니까.”

용이가 주머니에서 새동처럼 생긴 환약을 한 움큼 꺼내더니 단번에 삼켰다. 선이가 쌍, 용이 앞으로 달려갔다.

“형님, 방금 드신 약, 뭐예요? 오호라. 그게 바로 아무 것도 안 먹어도 힘이 펄펄 나게 하는 묘약이구만. 형님, 좋은 건 좀 나누시다. 저도 하나만 주세요!”

“이거? 묘약 같은 거 아닌데? 그리고 네가 먹기엔 좀 지저분한 맛이라.....”

“에이, 치사하게 혼자만 드시려고. 누가 그 속셈을 모를 줄 알아요? 쿵 한 쪽도 나눠먹으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러지 마

시고 저도 주세요, 예? 딱 한 알만, 예? 딱 한 알만요!”

선이가 떼쟁이 아기처럼 졸라대자, 하는 수 없다는 얼굴로 용이가 주머니에서 검고 동그란 새똥 같은 환약 한 알을 내밀었다. 선이는 그것을 냉큼 입안으로 털어 넣었다.

흥, 내가 못 먹을 줄 알아? 쓴 소태도 잘만 씹는 내가 이뎨약을 못 먹을까.

하지만 선이는 곧바로 오만상을 찌푸리며 환약을 뱉어냈다.

“똥, 똥, 어휴, 이게 무슨 맛이야? 크기만 새똥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새똥이잖아. 우웁, 똥, 똥.”

용이가 키득키득 웃었다.

“그것 봐. 묘약 같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 바보 같기는.”

“에이, 밥맛 떨어져! 난 하도 형님이 안 먹고도 향우장사 같은 힘을 내기에, 무슨 묘약이 따로 있나 보다, 나도 좀 얻어먹어보자, 했었죠! 하하. 아하하.”

선이는 제 바보스런 욕심이 스스로도 어이없어 웃음보를 터뜨렸다. 용이도 낯빛이 많이 풀렸다.

선이가 뱅글이를 안고 눈을 맞췄다.

“뱅글아, 너도 저 새똥 한 번 먹어볼래?”

수달이 고개를 뱅글뱅글, 뱅그르르뱅그르르르 돌렸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우스운지 선이는 배꼽이 빠져라 웃었고 용이마저 빙그레 미소 지었다.

선이는 강물로 입을 열두 번이나 헹궈내고 밥을 용이 뭍까지 두 그릇, 먹었다.

“아, 하늘은 높고 물은 잔잔하고 배는 부르고 등 따습

고.....”

별령 드러눕다 말고 도로 일어나 앉으며 선이는 등짝을 어루만졌다.

“에그, 등이 따스진 않구나.”

당신은 날 마다고 갈 적에 시치고 빼치고
행주치마 둘러치고 분홍치마 메치고
앞문치고 뒷문치고 앞벽치고 뒷벽치고 열무김치 칼로 툇쳐
소금치고 오이김치 초치고 가장에 야단치고
날마다고 가더니 영월 평창 다 못가서 날 찾아왔네

우리 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엮어매고 짚어매고 장치다리 곰배팔이
노간주나무 지게 위에 부کم떡 세 조각을 새뿔에 바싹 매달고
엽전 석 냥 옷집 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백복령 굽이굽이 부디 잘 다녀 오세요

선이는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가 기분 좋을 때 부르던 엮음
아리랑을 두 곡 잇따라 불렀다. 그리고는 정선에 두고 온 친구
를 부르듯, 정선 땅의 정령이 깃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하나
씩 부르기 시작했다.

“밤오색나비, 늦반딧불이, 삼하늘소, 물땡땡이, 꼬리명주나
비, 비오리, 황조롱이, 곤줄박이, 검은머리방울새, 알락할미
새, 말뚝가리, 금강모치, 퉁가리, 배가사리! 모두모두 안녕!

나 없는 동안 다들 잘 있어. 그리고 뱅글아, 나랑 뽀뽀 한 번 할까?”

쭉!

수달은 선이 옆에 누워서 귀를 종긋 세우고 아리랑 가락을 듣고 있었다.

“뱅글아, 우리, 꼭 함께 정선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지? 세상 구경도 하고 아버지도 모셔오고 떼돈도 벌고.....”

선 채로 그레질을 하며 선이의 호들갑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용이는, 선이가 정선 동식물의 이름을 하나씩하나씩 부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제 몸에 용 비늘이 한 개씩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계속해 봐. 계속. 식물들 이름도 불러봐. 이 형님의 소원이야.”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제 소원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고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시는 건데.....”

“너를 위한 소원은 없니?”

“저는 친구들 속에 있으면 언제나 행복하거든요. 친구들한테 내 얘기도 들려주고 친구들 얘기도 듣고..... 꿩의바람꽃, 으아리, 동강할미꽃, 까치수영, 꿀풀, 긴산꼬리풀, 구절초, 애기나리, 꽃쥐손이, 닭의난초, 병아리난초, 얼음새꽃, 도둑놈의갈고리, 홀아비바람꽃, 노루오줌, 거북꼬리, 쥐꼬리망초, 금꿩의다리, 꿩의비름, 용머리.....”

“용머리, 그런 것도 있어?”

“네, 깊은 산속에 피는 꽃인데요. 자줏빛이에요. 흰용머리도

본 적 있어요. 진짜 용머리처럼 생겼지 뭐예요?”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니?”

“떼돈 벌어들 때 산에 들러요. 어디에 피는지는 제가 잘 아니
까요.”



덩치가 무지막지 큰 사내 하나가 단양나루의 주막에서 앞
사공 이씨를 불러냈다.

“이무기를 보았다고? 계집애처럼 예쁘게 생긴 총각아이와 함
께 떼를 몰고 한양으로 갔다? 도다오는 길에 소금배를 탄다면
반드시 단양나루에 내디겠지. 흐흐흐. 이봐, 그놈을 잡아야
해. 지금껏 그놈이 끼친 해악이 도대체 얼마인가? 게다가 그
놈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안단 마딘가? 자네가 사냥
꾼들을 모으게. 모두 총을 들고 오도록 하고. 나는 큰 그물을
준비하지롱. 흐흐흐.”

집채만 한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서너 살배기 꼬마의 혀짜래
기 말, 또한 그 말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음흉한 웃음소리
에 이씨는 웬지 모를 오싹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무기를 봤다
는 자기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이 사내 말고는 없으니 달리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사내는 다른 뱃사공들과는 다르게 이

무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이무기를 잡으려 안달이 나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말겨만 주십시오. 사람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으니. 이거 내가 큰 일하겠구먼. 으하하.”

이씨는 겁을 먹지 않으려고 술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끄옥, 커어어, 좋다!”

역시나 술은 공짜 술이 제일 맛있단 말이지. 으하하.

이씨는 술에 정신이 팔려 보지 못했지만, 불빛을 받아 명석바닥에 너울거리는 사내의 그림자는 인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남 한강은 강폭이 넓고 물살이 잔잔하여 뒷사공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이 없었다. 앞사공 용이가 너무나 힘차게 뗏목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선이는 박자 맞춰주는 그레질도 하기 힘들어 그냥 뗏목 뒤편 가장자리에 앉아 수달과 장난질을 했다.

“뱅글아, 내 눈 좀 봐.”

선이는 입을 썉 내밀고 눈알을 뱅글뱅글 돌렸다. 머릿빛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갔다 아래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위로 갔

다, 되풀이하니 꼭 눈알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았다. 수달도 까르르 웃는 양으로 뱅글뱅글 돌았다.

“뱅글아, 물속에서 뱅글뱅글 돌아봐. 뱅글이 따라 물도 뱅글 뱅글 돌면 참 예쁘겠지?”

수달이 선이와 함께 돌고 싶었던지 선이의 가슴께로 휩, 달려들었다. 불각 중에 기습을 당한 선이는 그만 앞은 채로 떼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퐁당.

용이는 그레질을 멈추고 선이가 헤엄쳐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웬 일인지 선이는 올라오지 않았다. 수달 혼자 선이가 시킨 대로 물속에서 뱅글뱅글 돌 뿐이었다.

퐁당.

기다리다 못한 용이가 그레를 떼 위에 걸쳐놓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선이는 쌀가마니만 한 암초가 도사린 강 밑바닥에서 물풀에 온몸을 휘감긴 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머리 주변으로 붉은 핏물이 번지는 참이었다. 거꾸로 떨어지며 암초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었다.

한편 선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한 자락 정신 줄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오백 년 묵은 유천리 당나무보다 더 굵은 이무기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세상에, 세상에, 저게 뭐야? 이씨 아저씨가 말한 이무기잖아? 나를 잡아먹으려는 걸까? 제발, 제발.....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아, 제발, 꿈이겠지?

물풀들이 그물처럼 선이의 몸을 옥죄었다. 선이는 눈을 꼭 감았다.



까 무룩 정신을 놓았다. 저승을 다녀온 듯했다. 선이는 눈을 뜨면서 ‘이곳이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잠시 헷갈렸다. 뿌여니 밝아오는 시야에, 강가 능수버들에 매어놓은 뗏목, 주눅이 잔뜩 든 채 뗏목 위에 웅크린 수달, 좁고 긴 모래사장, 눈살을 찌푸리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용이의 얼굴이 보였다.

아, 용이 형님!

나를 구해주고 걱정해 주셨구나.

수달이 가슴팍으로 뛰어들고, 떼에서 떨어지고, 어, 어, 하다 암초에 머리를 부딪고, 물풀에 휘감기고..... 그리고 이무기! 용이 형님이 이무기를 물리치셨나 보다!

“형님, 괜찮으세요?”

선이가 별땃 일어나 물었다. 용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애가, 사돈 남 말 하네? 넌, 괜찮아?”

“이무기한테 다친 데 없냐고요?”

“이무기?”

“몸통이 유천리 당나무보다 굵은 이무기가 저를 잡아먹으려 했잖아요. 형님도 보셨을 걸요?”

순간, 용이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선우 너, 그렇게 까불려면 뱀목 타지 마라. 여기서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소금배 얻어 타고 집에 가! 뒷사공 노릇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앞사공이 신경 쓰지 못하는 잔일 도맡아 하면서 앞사공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자리라고. 네가 뒷사공이랍시고 여태껏 한 일이 뭐가 있니?”

선이는, 행여나 용이가 자기를 떼어놓고 가버릴세라, 얼른 뱀목에 올라 그레를 잡았다.

“죄송해요. 지금부터는 진짜로 안 까불고 잘할게요.”

수달 뱅글이가 선이 옆으로 와서 뱅글뱅글 돌았다. 선이는 수달을 붙잡아 앉혔다. 그리고 용이의 눈치를 보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뱅글아, 형님 기분 안 좋으니까 가만히, 꼼짝 말고 앉아 있어.....”

용이가 송충이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나는 밤눈이 밝아 밤에도 움직인다! 선우 너도 밤 꼬박 새울 걱정해라. 졸다가 떼에서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책임 못 진다!”



드디어 마포나루가 보였다. 멀리서 봐도 장바닥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우와, 형님! 마포나루예요! 저희가 정말 사흘 만에 도착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쏟아지는 줄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던 선이가, 마포나루를 보자마자 펴 듯이 환호했다.

용이는 그저 입술만 살짝 비틀어 올릴 따름으로 그다지 기쁜 기색을 비치지 않았다. 용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선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아아, 모두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앞사공이라고요!”

“호들갑은 그만 떨어라. 강주인이나 찾아보자.”

마포나루는 소금가마니를 실은 배, 광목이나 비단을 실은 배, 쌀이나 참깨 같은 곡물을 실은 배와 그 배를 타는 선원들, 때를 운반해온 떼꾼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강주인들로 시끌시끌했다. 용이가 강주인을 찾기 전에 강주인이 먼저 용이를 찾았다. 용이가 물고 온 뗏목이 강원도 정선의 깊은 숲에서 베어낸 최상품 황장목이었기 때문에 나루터에 즐비한 뗏목 중에서도 눈에 확 띄기는 했다.

“지씨가 떼꾼들을 잘 골랐군. 참, 요즘 같은 물길에 정선서 한양까지 사흘이라니, 귀신도 울고 갈 솜씨가 아닌가?”

목상이 준 발기와 목재 수를 확인한 강주인이 용이에게 떼돈을 건넸다. 강주인 옆에 서 있던 늙은 청지기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운 모양입니다. 사람의 솜씨가 아녓지요. 인간으로 둔갑한 물고기인지도 모르지요.”

청지기의 희부연 눈빛에 시기심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백내장이 파먹어 반쯤 짜부라진 눈동자가, 수달 뱅글이를 어깨에 엮고 장난을 치는 선이를 집요하게 훑어 내렸다.

“선우야, 수달은 그만 강물에 놓아주어라. 경복궁 가서 아버지 만나다며? 서둘러야지.”

용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다. 선이는 엉거주춤 수달을 내려놓고, ‘단양나루에서 만나자’고 귓속말을 했다.

용이는 선이를 재촉하여 급히 나루터를 떠났다. 인적 없는 고요한 야산에 이르러서야 용이는 선이에게 떼돈의 절반을 내어주었다.

“고맙습니다아아아.”

선이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당백전⁵⁾ 꾸러미를 받아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다.

“너도 돈을 좋아하지?”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있어 원납전을 났으면 아버지도 부역 끌려가지 않았을

5) 조선 시대에,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군이 만든 화폐.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화폐 가치의 폭락을 가져왔고, 고종 4년(1867)에 폐지되었다.

테고..... 돈이 있어야 약방 집에 외상값도 갚고 언니 혼수도 마련하고 너무너무 읽고 싶은 소설책도 사고.....

“원래는 앞사공이 훨씬 많은 돈을 가지게 되어 있지만, 나는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누구랄 것 없이 다들 돈이라면 환장을 하더군. 돈벼락을 맞는다면 죽어도 좋다는 인간들이 허다하더라고. 너도 그러냐?”

“아뇨, 저는 돈벼락 맞기 싫어요. 잘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거지요. 목숨을 잃고 돈을 얻으면 그 돈으로 뭐한대요?”

“그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목숨이지. 천금을 쥐도 피라미 한 마리, 제비꽃 한 송이의 목숨을 살 수는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돈으로 목숨을 사고팔아. 선우야, 명심해라. 너는 이제 큰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의 표적이 될 거다. 스스로 조심, 또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네 돈을 빼앗기 위해 네 목숨까지 노릴 수 있어. 네 손을 봐. 여기 돈이 있어요, 라고 동네방네 알리고 있잖아.”

선이는 돈이 든 안주머니를 쓰다듬던 손을 스르르, 내려놓았다.

안주머니가 축 처져서 왠지 어색해 보여. 안 되겠다. 기저귀감 속에 넣어 아랫배에 싸매어야겠어. 아랫배, 약간 부른 거야 누가 의심하겠어?

“형님. 한양에 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몇 번이나요?”

“글쎄, 한 열 번쯤?”

사실은 수백 번쯤 와보았다. 천 년이나 살다 보니 아우라지에만 박혀 있기에는 심심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디를 다녀봐도 가장 아름답고 포근한 곳은 역시 정선이요, 동강이었다.

“저, 형님. 바쁘지 않으시면.....”

“왜, 너랑 같이 다니자고?”

“길도 모르는 데에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한양에서 이 큰돈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요. 불안해서 말이에요. 형님은 열 번이나 와보셨다니 경복궁 가는 길이 흰하시겠네요. 기왕 도와주신 김에 끝까지 좀 도와주세요, 예? 예?”

선이가 불쑥 용이의 팔을 잡고 흔들며 떼를 썼다. 용이는 팔 뿐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느낌을 가졌다.

마음에 흔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나’라는 견고한 성채를 벗어나 ‘너’의 영향을 받는 것. 더운 피를 가진 너의 영향을 받아 본디 냉혈동물인 나의 피도 더워지고 있어.

용이는 송골매로 둔갑하여 엽령꾼을 추적할 생각이었지만, 선이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선이의 길라잡이 노릇을 하기로 했다.

“알았다. 나도 뭐, 딱히 할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선 이는 용이를 따라 한양 길을 걸었다. 정선 여랑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선이에게 한양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신천지였다. 갖가지 옷차림과 꾸밈새의 갑남을녀가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부자와 거지, 미인과 광대, 귀인과 천민, 노인과 어린아이가 꾸역꾸역 선이의 걸을 스치고 지나갔다. 종로통 좌우에 늘어선 육의전의 진열대에는 비단, 무명, 명주, 모시와 삼베, 종이, 생선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쌀가마니, 과일, 패물 따위가 끝도 없이 쌓인 점포들도 많았다. 물건을 사고팔며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하는 사람, 무엇이 마뜩찮아 그러는지 먹살잡이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분칠을 요란스레 하고 요상한 몸짓으로 손님을 끄는 사람들이 마구 뒤섞인 거리였다.

생전처음 보는 한양의 흥청거리는 시장거리와 사람들의 수작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선이는 발을 헛디디거나 용이를 놓치기 일쑤였다. 용이는 그런 선이를 야단치기도 하고 일부러 걸음을 늦춰주기도 하며 경복궁 중수 공사장을 찾아갔다.

공사장 입구에는 무장한 나졸들이 서 있었다. 부역꾼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일반 백성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용이는 나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당백전 한 껌미를 찢어주었다. 대장이 나졸 중 한 명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명령을 내렸다.

용이가 손짓으로 선이를 불렀다.

“저기 객관 은행나무 밑 평상에서 기다려. 아버지가 나오실 거다.”

선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지금 뇌물을 주신 거예요?”

용이가 피식, 웃었다.

“내가 말했잖니? 너희 인간들은 누구랄 것 없이 돈을 좋아한다고.”

선이가 입을 삐죽거렸다.

“치. 자기는 뭐, 인간 아닌가?”

용이의 낯빛이 다시금 냉정해졌다.

“그럼, 내일 마포나루터에서 보자.”

“에게? 겨우 하룻밤밖에 아버지를 못 만난다는 말씀이세요?”

“네 폐돈을 몽땅 뇌물로 바치면, 열흘쯤은 휴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

용이가 콧방귀를 끼고는, 나는 듯 빠른 걸음새로 멀어져갔다.



“아들이 찾아왔다니 당최 무슨 말인지 원. 나한테 정이, 선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들 말고 내가 모르는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 참. 영월 사는 팔촌 조카가 아들이라 핑계를 대고 나를 찾아왔나? 에이, 별 왕래도 없이 살았는데 날 보러 한양까지 왔을 리가. 어찌 됐든 팔자에 없는 아들 덕에 하루라도 노역에서 놓여나니 좋기는 하다만.”

정목수는 연신 고개를 가웃거리며 공사장을 나와 객관으로 갔다.

은행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던, 아담한 체격의 총각아이가 정목수를 보고 몹시 반가워하며 달려왔다. 정목수는 그 총각아이가 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누굴 보고 저러는 거야? 내 뒤에 누가 있나?

정목수는 총각이 그토록 반가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며 뒤를 돌아보기까지 했다. 총각아이가 바로 눈앞에 와서야 정목수는 총각의 이목구비가 눈에 익은 것을 알았다. 정목수는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이, 이게 누구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든 선이는 아버지, 아버지만 두 번 부르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정목수 또한 목이 꼭 막혀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부녀는 객관 머슴에게 국밥을 시켜놓고 평상에 마주앉았다. 정목수가 소맷부리 안쪽 깨끗한 곳을 접어 선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선이는 아버지의 소맷부리에 코를 갖다 댔다.

“아아, 아버지 냄새..... 이 냄새를 얼마나 그리워했지요.”

“너석도 참.....”

“아버지, 제 모습, 흉하죠?”

“아니다. 시대가 흉하고 세상이 흉한 거지, 우리 딸이 왜 흉해? 우리 딸은 치마저고리도 잘 어울리고 바지저고리도 잘 어울려. 정선을 안 나서면 몰라도 정선서 한양이 어디라고 장옷 뒤집어 쓰고 나설 수 있었겠니? 잘 입었다. 바지, 잘 입었어. 그래, 아버지 보고 싶어 천릿길도 마다 앓고 온 거냐? 덕포에서 소금배 얻어 타고?”

선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폐를 땀다고 하면 아버지가 놀라서 기함할 일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 사이, 너무나 여위고 약해져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광대뼈가 볼거졌고 이마와 눈가, 입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데다 허리는 굽었다. 마음까지 노인네처럼 약해졌는지 눈물이 그치지 않을 줄 알았다. 선이는 그런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 동안 어머니가 내내 앓았고 날이 갈수록 병증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정목수는 입술을 깨물고 이야기를 듣다가 깨문 입술 사이로 길고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냈다.

“정목수 이 사람, 아들이 있었더랬나?”

객관에서 나오던 홍감독이 정목수의 어깨를 뒤에서 툭 치며 말했다. 정목수가 벌떡 일어나 양손을 모아 잡고 허리를 꺾었다. 선이도 얼떨결에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자가 아버지를 하대하는 꼴이 보기 싫었지만, 여기서 마음 내키는 대로 경거망동 하다가는 필시 아버지한테 누가 되고 욕을 끼칠 터였다.

“아이고, 나으리, 이 아이는 소인의 아들이 아니옵고 딸이옵니다. 제 어미가 병을 앓아 죽을 지경에 처하고 사는 꼴이 엉망이 되다 보니 이 어린 것이 남장을 하곤 정선서 한양까지 천릿길을 허위허위 제 아비 찾으러 온 것입죠. 못난 아비한테 무슨 뽕족한 수가 있을 리 없는 데도요.”

홍감독이 감탄을 연발했다.

“이런, 세상에, 이야기책에나 나올 얘기가 아닌가. 참으로 대단한 용기와 담력을 갖춘 여식일세그려. 사내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일세. 여식아이가 아비 한 번 만나겠다고 남장까지 하고 그 먼 길을 오다니.”

홍감독을 보좌하는 집사가 한 마디 거들었다.

“책에 실릴 만한 효녀이오이다. 대원위대감께 품의하여 효녀 표창을 하시는 건 어떠하올지요?”

홍감독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평시 같으면 대원위대감께서도 감동하시고 기꺼이 효녀 표창을 하시겠지만, 화재 이후로 뒤숭숭하여 하루빨리 궁궐을 완공하기만을 재촉하시니..... 두고 보세.”

홍감독은 허리춤을 뒤져 당백전 몇 장을 꺼냈다.

“정목수, 딸내미 데리고 시전에 가서 정선에선 구경하기 힘든
과자라도 좀 사 먹이게. 내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자네를 고
향에 보내주고 싶네만, 그랬다간 당장 내 목이 날아갈 참이
니.”

선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원납전을 내면, 제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사옵니까?”

정목수가 선이의 옆구리를 아프게 찔렀다.

“인석아,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나서느냐, 나서기를? 원납
전이 언감생심, 우리 같은 백성이 꿈이라도 꿀 수 있는 돈이
라더냐? 나으리, 어린 것이 물정 모르고 하는 말이오니 조금
도 껄넘치 마소서.”

홍감독이 손사래를 쳤다.

“아닐세, 아니야. 어린 것이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는가?”

집사가 선이를 향해 말했다.

“요즘은 대원위대감의 엄명으로 공사 기한을 단축시키는 일
이 급선무라, 자네 아버지처럼 실력 있는 목수는 원납전을 낸들
부역 방면이 쉽지 않네. 그런데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라면서
어찌 그 큰돈을 마련할 수 있었느냐?”

선이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떼돈’이라는 말을 급히 집어삼켰
다. 용이의 말이 생각났다. 돈을 좋아하고 돈에 목숨을 걸며
돈을 빼앗기 위하여 내 목숨을 노릴지도 모르는 사람들.....
어차피 아버지의 부역 방면이 어려운 터에 떼돈까지 빼앗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보니 집사의 눈빛이 연민으로 가득 차 있던 아까와는 달리 호기심과 욕심으로 그늘이 저 있었다.

“비, 빛을 얻어 보려고 하옵니다. 소녀가 종살이를 하겠다고 하고 어떻게든 빛을 얻어.....”

“애야, 그만, 그만해라. 다 가난이 원수요, 못난 아비 만난 탓이로다.”

정목수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홍감독이 혀를 찼다.

“쫓쫓쫓. 아무리 엄중한 나랏일이라지만, 에그, 못할 노릇일세, 못할 노릇이야. 어찌 됐든, 정목수, 짧게나마 여식과 회포를 풀게나.”

홍감독이 집사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객관 머슴이 국밥 두 그릇이 놓인 상을 들고 왔다. 머슴은 바로 물러나지 않고 미적거렸다.

“소인도 타향살이 이십 년에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라, 댁네 사정이 남일 같지 않네요. 목이 메고 설움이 복받칠 때는 국밥도 쉬이 넘어가지 않는 법이지요. 정선서 오셨다니 아리랑이나 한 자락 부르시고 밥을 자셔도 자시지요. 요기 명치에 꼭 맺힌 설움을 우선 아리랑으로 내려 보내셔야 장에 탈이 안 납니다요.”

“자네 말이 맞네. 물 만 밥에도 체할 것 같은 때엔 아리랑이 제격이지.”

정목수가 한 손으로는 선이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선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목을 가다듬었다.

앞 남산의 피나무 단풍은 9, 10월로 들고요
이내 가슴 속단풍은 시시때때로 든다

앞 남산의 은행나무는 암수 서로 정답고요
님이야 님이야 내 님은 천만 리나 떨어져 죽어가는구나

강물은 돌고 돌아 바다로나 가지요
이내 몸은 돌고 돌아 어디로 가는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 버지,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면 정말로 안 되는 건
가요?”

“난들 왜 안 가고 싶겠니? 나랏법이 엄중하여 내 몸 하나 도
망치면 너희들까지 무사할 수 없으니 감히 어찌해볼 엄두를

못 내고 묶여 있는 게지. 그건 이곳에 있는 모든 부역꾼들이 다 똑같단다. 다들 고향이 그리고 처자식이 그리지만, 돈 없고 힘없는 백성으로 태어난 죄로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날마다 해 뜨면 일하고 달 뜨면 눈 붙이며 그저 완공 날짜만 바라고 있지.”

“어머니 병은 아버지가 곁에 계셔야 낫는 병인 걸요? 정이 언니도 아버지가 계셔야 남부끄럽지 않게 혼례를 치러줄 수 있을 테고.”

“선이야..... 어린 것이 온 집안 걱정을 도맡아 하고 있구나. 쫓쫓.”

객관의 밤은 깊어갔지만, 선이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었다. 그것은 정목수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위셨어요?”

“괜찮다. 집에 가서 네 어머니랑 정이랑 선이랑 둘레상에 둘러앉아 밥 먹으면 금세 회복될 거다. 타관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로 안 가더라고. 그건 그렇고 우리 선이는 못 본 사이에 처녀 모양이 나는구나. 많이 컸어.”

“아니예요, 아버지. 전 아직도 천방지축 철부지라며 어머니랑 언니한테 매일 혼나는 걸요?”

“천방지축인 성싶다가도 알고 보면 생각이 깊은 것이 우리 선이의 매력이지. 근데 정이하고 혼담이 오가는 총각이 누구냐?”

“아우라지 건너 유천리 사는 오금동이라는 총각이에요. 혼인

하자고 말 들어온 지가 벌써 이 년이 넘었지요.”

“너석, 내가 부역 떠나자마자, 눈이 맞은 모양이구나.”

“부모 허락 없이 총각을 사귀었다고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으셔요.”

“허허. 네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네 어머니도 혼인 전에 이 아비하고 눈이 맞았었거든. 그때는 뭐, 부모 허락을 받았더랬나?”

선이는, 근엄한 표정으로 정이를 야단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호호호. 너무 웃겨요.”

“근데 총각네 집에서는 왜 그리 혼인을 재촉한다던?”

“조부모님이 후손이 급하다고 채근이신가 봐요. 어머니는, 처녀총각이 사귀다가 총각 마음이 돌아서면 처녀만 손해라고 걱정이시고요.”

“정이는 그 총각을 많이 좋아하고?”

“그럼요. 아주 훌쩍 빠졌어요.”

선이가 콧등을 찡그리며 입을 쏙 내밀었다.

“우리 선이가 언니를 질투하는구나. 하하하.”

“질투는 무슨 질투예요? 하는 짓이 하도 어이없고 유치해서 그런 거죠.”

“본디 처녀총각이 사귄 때는 어이없고 유치한 짓들을 하는 법이다. 우리 정이는 이제 곧 시집을 보내야 할 테고, 선이는 언제 시집가나?”

“저는 시집 안 가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오래오래 살 건데

요?”

“뭐?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참한 데릴사위를 하나 데려오렴. 믿음직한 딸에다 아들 같은 사위까지 끼고 살면야 이 아비는 더 바랄 것이 없지!”

주거니 받거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동창이 흰하게 밝아왔다. 선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원망했다.

객관 머슴이, 보리를 섞은 쌀밥과 시래기국, 김치와 달걀찜, 숯불이 놓인 간소한 아침상을 들고 왔다.

“어떻게, 부녀지간 쌓인 회포는 좀 푸셨나요?”

“그게 하룻밤으로 되겠나?”

선이는 눈물을 참느라 아침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아버지.....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요.”

“나도 싫다. 그러나 어찌겠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을 때가 있단다. 내 한 몸만 생각하면 달아나도 벌써 달아났고 한강수에 빠져도 벌써 빠졌다. 네 어머니를 생각하고 너희 자매를 생각해서 아리랑 한 자락에 온갖 시름 내려놓으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지. 선이야, 기다리자. 경북궁 제깃 것도 언젠가는 완공되겠지.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자꾸나. 밥 먹어라. 먹어야 산다.”

아버지가 시래기국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씹어 넘기며 말했다. 선이도 숟가락을 들고 억지로 밥을 삼켰다.

객관을 나오며 정목수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색동주머니 한 개를 꺼냈다. 주머니 속에는 단풍처럼 고운 붉은 빛깔의 갑사

땡기가 들어 있었다.

“우리 선이, 아비 찾아 천릿길을 뚫아온 선이한테 못난 아비가 줄 거라곤 이것뿐이구나. 종로 시전에서 이걸 보고는 우리 선이, 탐스러운 머리채에 이걸 동이면 얼마나 예쁠까, 하루 종일 선이 네 생각만 했더랬다.”

선이는 땡기를 받아들고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용이는 포목전 주인에게 돈다발을 내밀었다.

“광목을 마흔다섯 통씩이나? 떼돈 버셨구먼. 우리 점방에서 광목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는 사람이라면 팔도의 포목상인 말고는 떼꾼뿐이거든.”

용이는 입 꼬리를 살짝 올리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잘 생각하셨소. 목숨 걸고 떼돈을 벌었으면 그걸 밀천 삼아 잘살 궁리를 해야지, 주막 색시들 치마폭에 다 밀어 넣어서야 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용이가 여전히 대꾸를 하지 않자, 주인은 찻, 입맛을 다시고 발기를 썼다.

“여기 광목 마흔다섯 통 수량과 내 인감도장이 찍힌 발기요. 이달 말에 덕포나루에서 인수하시요.”

용이는 말없이 광목 발기를 받고 돌아섰다. 그리고 번잡한 거리를 총총히 지나 외진 골목길 끝집의 어두운 뒷간으로 들어가는 척하더니, 한 마리 빠꾸기로 둔갑하여 날아올랐다.

빠꾸기는 마포나루터의 한 주막 마당귀 추자나무 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다. 주막의 너른 마루에서는 여러 강주인들과 청지기들, 떼꾼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용이와 선이 얘기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다.

“내 손으로 황장목을 인수하고도 의심스럽다니까.”

“그러게, 아무리 항우장사라도 글썄, 정선에서 이곳까지 사흘 만에 떼를 몰고 오다니, 그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귀신이라.”

“정말? 누가 그래?”

“그냥 해 본 소리야. 하하하.”

“아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귀신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람이 아닌 것은 틀림없어.”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뱀장어란 말인가?”

“뱀장어인지 물뱀인지는 나도 모르지.”

“그러다 이무기 소리 나오겠다. 원, 사람도 흰머리가 늘더니 흰소리까지 느는군.”



선 이와 용이가 열 배의 떼돈을 받았다는 소문은 소금배가 달는 나루터마다 선원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다. 나루터에서 내려 제 삶터로 돌아간 떼꾼들이 소문에 살을 붙여 퍼뜨리기도 했다. 소문을 들은 주막집 주인들은 색시들을 불러놓고 무슨 짓을 해서든 그 젊은이 둘을 붙들라고 귀가 따갑도록 잡도리했다.

단양나루에서 가장 큰 주막의 주모 김연옥도 선이와 용이를 주막으로 꼬드겨 떼돈을 알려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흥, 떼돈은 본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지. 평시 떼돈의 열 배라면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여하튼 단양나루에는 안 내릴 수가 없을 터. 좋다. 그놈들한테는 이 김연옥이가 몸소 나선다. 제깃 놈들이 아무리 귀신처럼 신출귀몰한다고 해도 그래 봤자 사내놈들인데, 강릉 기생도 울고 간다는 이 김연옥이의 미모에 무릎 꿇지 않을 도리가 있겠어?”

점재 출신 욕쟁이 주모의 집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

“우라질, 일하다 죽은 조상이 있나, 웬 게으름들이야? 잡것들아, 시방 때가 어느 땐데, 정신들을 못 챙기고 있어? 창포물에 머리 감고 팔비누로 세수하고 젤 고운 옷으로 떨쳐입고 분단장도 곱게, 곱게 하라니까.”

“아, 그 귀신 떼꾼들 후려잡으라고요?”

“귀신은 무슨, 똥물에 튀길! 귀신이건 무엇이건 우리는 돈만
알겨내면 장땡이야.”

그때 주막 머슴이 엉덩이에 비파소리가 나도록 호들갑을 떨
며 달려왔다.

“저 시러베자식은 또 왜 저리 호들갑이야?”

주막 머슴이 숨에 턱에 닿아 씩씩거리며 말했다.

“기, 김연옥이네서 드, 듣고 오, 왔는데 말이에요.”

“아, 뭐를?”

“그, 글썄 그, 귀신같은 떼꾼들이.....”

“아, 좀 빨리 말해. 성질 급한 사람 숨넘어가겠다, 이놈아.”

“그 떼꾼들이 시방 소금배를 타고 단양나루로 들어오고 있답
니다. 오늘 저녁은 단양나루에서 먹을 모양이랍니다.”

주모는 맨발로 섬돌 밑으로 내려섰다 도로 올라서며 수선을
피웠다.

“에구머니나, 연옥이년, 그 호랑이가 물어갈 년이 선수 치기
전에 우리가 그 귀신들을 잡아야 해. 잡것들아, 얼른 준비해.
얼른!”

때마침, 그 주막 봉숫방에서는 도박으로 떼돈을 몽땅 날린
늙은 떼꾼 전씨가 오도 가도 못하고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다.
목구멍에 삼 년 묵은 가래가 붙은 탓에 둔탁하기 짝이 없는
음성이었다.

신발 벗고 못 갈 곳은 밤나무 밑이요

돈 없이 못 갈 곳은 색시 있는 술집이라

앞 남산 호랑나비는 왕거미줄이 원수요

나의 백년 원수는 금전이로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하는 항우 같은 장사도

금전이 없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

제 잘났느니 내 못났느니 인물 다툼 말아라

노랑전 한두 푼이라도 그놈이 정말 잘났네

술 잘 먹고 돈 잘 쓸 때는 금수강산일러나

술 못 먹고 돈 못 쓰니 적막강산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문득 아리랑 소리가 잦아들었다. 전씨는 문짝에 귀를 바싹
갸다 대고 옥쟁이 주모가 색시들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다.

“뭐? 그것들이 진짜로 정선서 한양까지 사흘 만에 떼를 몰았
다고? 그래서 열 배의 떼돈을 벌었던 말이야? 이런 쌍, 하늘
도 불공평하지. 누구는 떼돈에 쌈짓돈에 마누라 고쟁이춤에
든 지린내 나는 돈에 어린자식 코 묻은 돈까지 다 날려서 사
람 취급도 못 받고 이려고 자빠져 있는데, 그놈들은 무슨 운

발이 그리 좋단 말인가? 내가 손 좀 봐줘야지, 이거 안 되겠어. 앞사공 놈은 잘못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릴 테니 그 계집애 같은 녀석을 따라붙어 틈을 보아 찌꽂, 해야지. 그 돈은 내 돈이야. 클클.”

전씨는 단양나루에서 선이를 미행하여 떼돈을 훔칠 계획을 짰다.

“나는 그놈의 얼굴을 알지만 그놈은 내 얼굴을 모르니 아주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구먼. 우선은 나루터에서 소금배를 기다렸다가 그놈들이 여장을 푸는 주막을 알아둬야지. 그리곤 몰래 숨어서 동정을 엿보다 놈이 뒷간에서 볼일을 보거나 술에 취할 때를 놓치지 말고 입을 틀어막은 다음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놈이 정신을 잃었나 확인하고 저고리 안주머니를 뒤져야지. 떼돈이란 건, 괴나리봇짐 파위에 넣어두는 게 아니니까.”

돈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아랑곳없이, 저녁노을 스며든 동강의 물빛은 꿈결처럼 아름다웠다.



선이가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보따리를 풀던 날 밤, 강물에서 스멀스멀 기어올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한 마리의 거대한 이무기가, 밤눈 좋은 동강 낚시꾼들의 눈에 띄었다. 낚시꾼들은 기겁하여 낚시 도구도 챙기지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다.

그러나 어스름 달빛에 비친 이무기의 그림자는 이무기가 아니었다. 폐곤 이씨와 주막에서 얘기하던 사내의 그것이었다. 낚시꾼들이 이무기를 보았기에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지, 그 흉악한 그림자를 보았으면 아마도 온몸의 털이 곤두선 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을 것이다.

동굴 속으로 들어간 이무기는 갑갑하다는 듯, 이무기 허물을 뚫, 벗어던졌다.

“이따위 가짜 이무기 허물, 이제 필요 없쎬. 흐흐흐, 놈을 잡으면 푹푹 고아서 이무기 탕을 한 솥 끓여야지. 둘 다 몸보신이 될 거야. 흐흐흐, 껍질은 고이 벗겨서 악어 머디피보다 훨씬 비싼 이무기 머디피를 만들고, 흐흐흐.”

엽령꾼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무기들이 동굴 안 종유석에 부딪치며 끊임없이 투두둑, 투두, 소리를 냈다.

“인간드디 멀리서 쏘아대는 총알로는 이무기를 죽이기 힘들

거야. 행동이 무척 빠른 녀석이거덩. 녀석한테 가까이 가서 대가디에다 폭약 같은 걸 터뜨려주면 딱 좋은데, 인간들은 겁이 많고 우둔해서 가까이 가진 못하고 멀찌감치 앉아서 들입다 총질만 해덜 거거덩. 일단은 인간들을 시켜 이무기 놈의 힘을 빼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서서 끝을 내야 하는데..... 무작정 덤벼서는 큰 코를 다칠 수 있ぜ. 뭔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야겠ぜ. 이왕이면 어리석은 인간을 이용해서 말이지.”

엽령꾼의 몸에 난 구멍에서 찢득찢득하고 시커먼 기름 같은 것들이 흘러내렸다. 냄새가 지독했다. 엽령꾼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호랑이 가죽 요에 누워 곰 가죽 이불을 덮었다.



“형님! 저 왔어요.”

사람들에게 연신 길을 물어가며 간신히 마포나루터에 도착한 선이는, 짝다리를 하고 강물을 바라보는 용이를 발견하고 뛰어갔다.

“형님, 저 왔다고요. 아버지 만나고 하룻밤 같이 있다 왔어요.”

용이가 한쪽 눈썹을 슬쩍 올렸다 내리는 것으로, ‘그랬느냐’

라는 말을 대신했다. 용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선이는 용이가 반가웠다.

“우리, 여기서 소금배 타는 건가요?”

용이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뱅글이, 보셨어요?”

용이가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나루터 구석, 흰 수련이 피어 있는 곳을 가리키더니 작은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제 옆에서 때 아닌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자, 뱅글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 보았다.

“뱅글아, 뱅글아, 여기야.”

선이가 손을 흔들었다. 뱅글이가 출렁거리며 다가왔다.

“아, 우리 뗏목 식구들 다 모였네.”

용이가 그때야 입을 뗐다.

“내가 어째서 네 식구냐?”

선이는 먼구스런 마음에 머리를 굽적거렸다.

“꼭 그렇게 고슴도치같이 까칠하게 구셔야 마음이 편하세요? 그야 뗏목에서 사흘 밤낮을 함께 있었으니까 식구죠. 밥은 같이 안 먹었지만요. ㅋㅋ. 형님은 다른 건 다 멋진데, 식성이 너무 이상하셔. 설마 어제랑 오늘도 그 새똥으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이봐, 선우, 남의 식성에는 신경 끄시지.”

“참, 또 남이래? 식구라니깐!”

선이가 입으론 웃으면서 눈을 흘겼다.

“알았다, 알았어. 아버지는 편안하시든?”



“편안하시기가 하겠어요? 어쨌든 무사히 살아계신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실 날을 기다려야지요.”

아버지 얘기를 하자마자 석별의 정이 가시지 않은 듯, 선이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용이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아렸다.

인간의 가족애란 이런 것인가. 나는 천 년 전에 헤어진 내 형제들에 대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모두 형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이가 정식으로 허리를 반으로 꺾으며 인사했다. 용이는 더욱 당황하여 급히 소금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얼른 가자. 배 떠나겠다.”

선이는 뱅글이를 목마 태우고 용이를 뒤따랐다.

“뱅글아, 한양 구경 잘했어? 한양, 진짜 진짜 크지? 네 친구들 중에 한양 구경한 아이, 있어? 없지? 내 친구들도 그래. 울 어머니도, 울 언니도, 정선에서 나서 정선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단다. 우리, 언젠가 또 한양을 구경할 기회가 있을까?”

선이가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뱅글이를 바라보았다.

용이는 그런 선이를 곁눈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한양 구경할 기회? 있지. 얼마든지. 넌 겨우 열네 살..... 뭐든 소망하고 뭐든 계획할 수 있는 나이야. 간절히 소망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담대히 실천하면, 꿈은 이루어진단다.

그리고 용이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봐, 사룡! 너도 꿈을 이룰 거야. 동강의 수호신이 되어 동강이 품고 흐르는 물과 땅과 못 생명을 수호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선이는, 내가 수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생명이지.

선이야,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 이와 용이는 함께 단양나루를 거쳐 덕포까지 가는 소금 배에 올라탔다. 이제 더는 그레질을 할 필요가 없어진 용이가 모처럼 선이 옆에 나란히 앉아 넓고 푸른 한강수를 고즈넉이 바라보았다.

“선우야, 네 친구들 이름 좀 불러 봐.”

“제 친구들요? 정선 여랑리 사는 간난이, 막딸이, 꽃분이 같은 애들 말이에요?”

“아니. 뗏목에서 불렀던 정선 동강 주변 동식물 친구들 이름.”

선이가 고개를 돌려,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어리바리한 눈빛으로 용이를 쳐다보았다.

“그 친구들 이름을, 여기서 왜요?”

“그냥. 내 소원이야.”

“형님은 저번부터 차아아암, 이상한 소원을 말하시네요? 그래도 뭐, 형님의 소원이라는데 그 정도를 못하겠어요? 좋아요.”

선이는 뱅글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한 채, 입을 열었다.

“표범나비, 까마귀부전나비, 나랑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푸른 부전나비, 팔중이, 어리호박벌, 나방이지만 나비처럼 예쁜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 그리고 검은머리방울새, 딱새, 꼬마물떼새, 깨질까 두려운 큰유리새, 정선 아라리가 생각나는 으아리, 푹 따서 먹고픈 산딸기, 뱀딸기.....”

용이의 허벅지 주변으로 용 비늘이 하나둘, 돌아났다. 용이는 피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점점 커져가는 용의 기운을 느끼며 선이의 목소리를 음미했다.

선이야, 내가 너를 도운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도운 거지. 깽뚫한 인사는 내가 너한테 해야겠다.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야말로 천 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인연.....

그때, 두 사람 옆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점점 큰 동심원을 그리며 맴맴 돌던 뱅글이가 소금가마니 더미를 건드렸다. 위태롭게 쟁여져 있던, 가장자리의 소금가마니 서너 개가 한꺼번에 기울기 시작했다. 뱅글이는 그것도 모르고 선이의 주의를 끌려고 더 열심히, 뱅글뱅글 맴을 돌았다.

용이에게는 눈이 있는 앞쪽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사방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 용이는,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소금자루가 뱅글이를 덮치기 직전에 벌떡 일어나, 소금자루 네 개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밀어 넣었다. 누가 봐도 사람의 숨씨라고는 믿기 힘든 민첩함과 괴력이었다. 그러나 사람들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용이는 갑판 널빤지 위에 튀어나와 있던,

녹이 잔뜩 스민 옷을 피하지 못하고 밟아버렸다.

“이놈의 못!”

용이는 손가락으로 못을 획, 잡아 빼어 강물에 던졌다.

선이는 놀라서 발을 동동 굴렀다.

“형님, 괜찮아요? 땀글아, 괜찮니? 어머, 어머, 형님 발에서 피 나요!”

선이는 얼른 선실로 달려가서 소금물이 든 솥대야를 얻어왔다.

“형님, 여기다 발을 담그세요. 피 색깔이 왜 이렇죠? 밤하늘 색깔처럼 검푸르네요? 이게 파상풍 독인가? 이런 거는 침 봤는데? 어쨌든 용이 형님, 녹슨 못에 잘못 찔리면 파상풍 독이 오를 수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가만, 가만, 가만히 계세요.”

이무기의 핏빛은 초록색, 용의 핏빛은 검은색. 핏빛이 검푸르다는 것은 용이가 이무기에서 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용이는 은근히 기뻐다.

선이는 용이의 발을 정성껏 씻겨준 뒤,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아버지한테서 받은 감사뎡기를 꺼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생각해 간직해 오셨다는 귀하디귀한 선물. 나한테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소중한 물건이지만, 용이 형님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아. 조금도 아깝지 않아. 더 소중한 것도 막 주고 싶은 걸.

선이는 용이의 발에 난 상처에다 그 예쁜 감사뎡기를 감아주었다.

단

양 용바위봉 중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사냥꾼들이 모이곤 하는 산막이 있었다. 산막치고는 큰 편이었지만 그래봤자 산막인지라 상주하는 사람은 없고 짐승이 잘 잡힐 때만 사냥꾼 예닐곱 명이 들락날락하며 밥을 해먹고 잠을 자는 곳이었다.

그런데 별반 사냥철이랄 것도 없는 5월 중순, 논밭 가진 사람들은 모내기하고 밭 갈아 씨 뿌리느라 정신없는 농번기에, 사냥꾼이 무려 스무 명 남짓이나 도둑고양이처럼 스멀스멀 모여들고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세뇌되어 엽령꾼의 앞잡이가 된 떼꾼 앞사공이씨는 그들을 맞이하여 미리 준비해놓은 밥과 고깃국을 양껏 먹였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술 한 잔씩을 부어주며 말했다.

“지금이 물 많은 장마철도 아닌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아우라지에서 마포나루까지 사흘 만에 떼를 나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분명히 이 두 눈으로 보았네. 그 앞사공 용이란 놈이 사람으로 둔갑한 이무기일세. 그놈이 저질러온 행악인즉슨 다들 잘 알지 않는가? 내가 단양나루에 나드는 소금배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가 놈이 오는 즉시 통기할 터인즉 자네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곧바로 총을 들고 집합하게. 그놈을 잡기만 한다면야 그놈이 가지고 있을 떼돈은 우리 몫이 아닌가? 내가 다들 섭섭지 않게 찔러줄 테니 내 말만 믿고 따르게!”

상투도 틀지 않고 머리털을 사자 갈기처럼 형클어뜨린 사냥꾼 하나가 술잔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끄억, 트림을 했다. 그 옆에 섰던 털복숭이 사냥꾼이 소리쳤다.

“제 아무리 용 못 된 이무기라고 하지만, 총을 든 사냥꾼이 스물한 명이나 달려드는 데야 빠져나갈 도리가 없을 것이오. 떼돈도 떼돈이지만,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감히 인간을 해치는 짐승을 눈 뜨고 봐줄 수 있소?”

사냥꾼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호응했다.

“맞아, 맞아.”

“그렇지!”

“사냥꾼의 자존심이 있지!”

“텅달아 떼돈도 챙기면, 핑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선 이와 용이가 단양나루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어스름이 산그늘에서 출발하여 작은 언덕들을 넘어 나루터 마을까지 야금야금 삼키고 있을 즈음이었다. 단양나루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소금배의 일정을 따라 선이와 용이도 근처 주막에다 숙소를 정해야 했다. 선이는 용이가 듣지 못하도록 뱅글이에게 귓속말을 했다.

“뱅글아, 저기 저 능수버들 아래 인적 없는 곳 보이지? 이따 깜깜해지면 목욕하러 나올 테니까 저기서 기다려.”

뱅글이가 뱅글뱅글 돌며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선이는 정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껏 들떴지만, 용이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예민한 감각으로 단양 나루터에 떠도는 어두운 기운을 느꼈다. 살기와 탐욕이 공기 속에 수증기처럼 떠돌았고,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질투심과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이 길바닥에 자갈처럼 깔려 있었다.

그때, 울긋불긋한 무색옷을 갖춰 입은 색시들이 떼로 몰려나와 용이와 선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이고, 인물들도 흰하셔라. 어떤 집 처자를 호강시켜 줄는지, 에그, 부러워. 도련님들, 우리 주막으로 오시와요. 잘해드릴게, 응?”

색시들은 자기네끼리도 싸웠다.

“야, 옥경이, 이 년아. 이 도련님, 내가 붙들었어. 널랑은 아무 상관 없거든. 어서 꺼지지 못해?”

“이 년이?”

“뭐, 이 년? 엇따 대고 년, 년이야?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천 그릇은 더 먹었거든. 옥쟁이 주모 밑에서 빌어먹고 있는 주제에 말이 많다!”

“옥쟁이라고도 김연옥이보다는 의리 있는 주모걸랑!”

색시 둘이 싸우는 틈을 타서, 선이는 몸뚱이를 최대한 웅크렸다가 확, 색시들을 떨쳐내고 달아났다. 한참 뛰어가다 보니, 용이가 보이지 않았다.

“형니이이이이님?”

선이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두리번두리번, 용이를 찾았다. 용이는 단양 나루터에서 가장 번듯한 김연옥이네 주막과 옥쟁이네 주막 사이에 서 있었다. 용이의 검고 긴 눈썹이 꿈틀, 했다. 용이의 발길이 옥쟁이네를 향했다. 선이는 용이를 따라갔다.

옥쟁이 주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용이와 선이를 반겼다. 주모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말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집이우. 아무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하시우. 내가 용의 고기라도 해다 바칠게.”

용이가 주모를 쓰윽, 노려보았다. 냉혈동물의 차가운 기운이 쏟아져 나왔다. 주모가 휘청, 뒷걸음질을 했다. 주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용이가 싸늘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무 것도 필요 없소. 봉넷방 하나만 주시오.”

“수, 수, 술상은 어떻게?”

“필요없다잖소?”

주모가 자라목을 하고 눈을 착 내리깔고 바들바들 떨며 물었다.

“그, 그럼, 시, 시, 식사는 어떻게?”

“나는 필요 없소! 선우, 너는 어떠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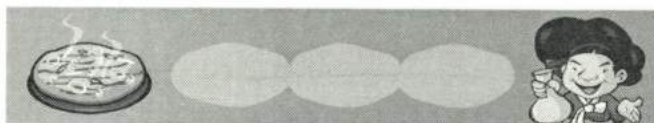
선이가 용이와 주모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다.

“저, 저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냥 뭐, 저 혼자 밥상 받아서 먹기도 거시기하고 새똥 같은 거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누룽지 같은 거 남는 거 있으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주모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누룽지는 부엌 소쿠리에 있으니까 자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시구려. 예그, 갑자기 웬 쪽머리가 이리 아프누. 아이고, 머리아. 난 좀 누워야겠다.”

말을 끝내자마자, 주모가 불에 그슬린 돼지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달음질쳤다.



우리를 노리는 자가 있어. 한둘이 아니야.

용이는 온몸의 세포를 긴장시킨 채, 곳곳이 앉아 있었다.

“형님, 안 주무세요? 아함, 피곤하네요. 저 먼저 잘게요.”

선이는 여장을 풀자마자 요 위에 털썩 드러누웠다.

누룽지 먹고 찬물 한 바가지 들이켰으니 두 시간쯤 자고 나면, 오줌이 마려울 거야. 그때 오줌 누러 나가는 척하고 일어나서 목욕 가야지. 에그, 언제 씻고 못 씻은 거야? 당최 찹찹해서 견딜 수가 없어.

선이는 눕자마자 잠이 들어, 가르릉가르릉, 코까지 골았다. 용이는 그 소리에 슬며시 긴장을 풀고 미소 지었다.

녀석. 많이 곤했나 보군. 잠든 모습이 아기고양이 같군. 참, 이상한 일이야. 누군가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이렇게 오달지고 재미날 줄이야.

그때 밖에서 색시들이 모여 구시렁거리는 군소리가 용이의 평화를 깨뜨렸다.

“에이. 짜증나. 돈도 많으면서 이런 데서 좀 풀면 안 돼?”

“그러게 말이에요, 언니. 좀팽이, 노랑이 같은 것들!”

“어떻게 내 미모에 넘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 저것들, 인간이 아닌 것 아니야?”

“에구머니나, 무서워라. 그런 말쑤는 하지 마세요, 언니. 또
알아요? 밤에 몰래 불러낼지.”

“야, 꿈도 꾸지 마라. 아까 우리 욕쟁이 주모가 한 소리 했
가 기함하고 드러눕는 거, 못 봤니? 그냥 좀팽이 같으면 내가
어떡하든지 무리수를 써 보겠어. 그런데 어딘가 무섭고 끔찍
한 데가 있잖아. 감히 범접을 못하게 하는…….”

이윽고 색시들도 물러나고 사방이 괴괴해졌다. 통나무처럼
꼼짝 않고 자던 선이가 몸을 뒤채었다. 용이는 선이 옆에 누
워 자는 척했다.

선이가 꿈지락꿈지락 몸을 일으켰다.

“형님, 주무세요?”

용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님은 그레질할 때는 천하장사 같더니, 주무실 때는 아기
같으셔. 아이, 오줌 마려워. 알맞추 일어났기 망정이지 그대로
잤으면 이불에다 싼을 거야. 용이 형님 옆에서 오줌을 싸다
니? 생각만 해도 소름 돋네, 소름 돋아.”

용이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선이가 혼잣말을 하면서 일
어났다. 듣고 있던 용이의 입가에 다시금 달콤한 미소가 어렸
다.

윗목에 놓인 낫요강이 선이를 유혹했지만, 선이는 구태여 소
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지게문을 열었다.

요강에 오줌 누다가 형님이 깨면 어떡해? 귀찮아도 변소에서
누자.

가 느다란 하현달이 용바위봉 위에 활 모양으로 걸려 있었다. 선이는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변소 쪽을 바라보았다.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 등롱이라도 들었어야지 저길 가지, 그냥 갔다간 똥통에 빠지고 말 걸?

선이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곤 살구나무 아래에서 슬쩍 바지를 내리고 앉아 싸아, 싸아, 오줌을 누었다.

아닌 밤중에 웬 뜨거운 오줌물이냐고? 미안해. 살구나무 뿌리야. 정말 미안해, 대신 약속할게. 내일 아침에 내가 잘 삭힌 거름 한 망태기, 얻어다 뿌려줄게. 알았지?

선이는 한층 가뿐해진 걸음새로, 달빛에 젖은 밤안개가 은빛 실처럼 고요히 내려앉은 강가로 갔다. 능수버들이 하늘선녀의 긴 머리채인 듯 천천히 하늘거렸다.

선이는 달빛 잘 드는 쪽에서 옷을 벗어선 잘 개켜서 능수버들 머리채가 만든 어둠 속에 놓아두었다.

그때 찰방찰방, 물소리가 다가오더니, 뱅글이가 나타났다.

“뱅글아, 뱅글아, 여기야. 똑똑한 우리 뱅글이가 약속도 잘 지키네?”

선이는 반가운 마음에 조심성을 잊고 침병, 강물 속으로 뛰

어 들었다.

“어, 추워, 추워. 이걸 시원한 게 아니라 얼어 죽겠다. 뱅글아, 이리 와. 너라도 껴안아야 덜 춥겠어.”

선이는 추위를 이기려고 뱅글이와 함께 열심히 몸을 움직였다.

그때 한 남자의 추레한 그림자가 능수버들 머리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선이가 봉긋방을 나설 때부터 도둑고양이보다 더 조심스레 선이를 뒤쫓아 온, 떼꾼 출신의 노름꾼 전씨였다. 전씨는, 선이가 나무 아래 앉아서 오줌을 눌 때부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언제부터 사내가 엉덩이를 까고 앉아서 오줌을 똥지? 소리를 덜 내려고 그런가?

그런데 옷을 벗고 머리를 푼 채 강물에 뛰어드는 선이를 보고서는, 으, 소리가 튀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 제 손으로 입을 털어 막았다.

계집아이였군! 계집아이였어! 계집아이가 당돌하기도 하지. 제깃 것이 감히 사내 흥내를 내며 떼를 타고 열 배의 떼돈을 벌기까지? 온 세상을 잘도 속인 셈이군. 나한테는 외려 잘 똥어. 애초에 세상을 속인 건 저 아이야. 나는 저 아이가 속여서 번 돈을 가져가려는 것뿐이야.

그는 벗어놓은 선이의 저고리 안쪽에서 당백전 꾸러미를 꺼냈다. 비록 한 꾸러미에 불과했지만, 한 푼이 엽전 백 푼과 맞먹는 돈이었다.

“속여서 번 돈이란 노름판의 돈처럼 먼저 보는 놈이 임자거

든. 클클클.”

전씨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혼잣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다. 전씨는 또 한 번 제 입을 틀어막았다. 어디선가 수상한 기척이 들렸다. 쉼이이익, 쉼이이이이이이익.

뭐야? 큰 뱀이 지나가나? 아이고, 무조건 줄행랑이다.

전씨는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치켜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하하. 간질이지 마, 뱅글아. 아아아, 뭐니? 뱅글이 너!”

하지만 선이는 아무 것도 모른 채 달빛에 흠뻑 젖어 수달 뱅글이와 장난을 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용이가 자는 척하고 있던 주막 주변에도, 총을 든 사냥꾼들이 모여들었다. 대장은, 엽령꾼의 수하가 되면서 눈 밑이 점점 시꺼메지고 마음마저 점점 엽령꾼을 닮아가는 앞사공 이씨였다.

이씨가 입을 떼지 않고 수신호로 돌격 명령을 내렸다.

용이가 들어 있는 봉긋방을 조준한 채로 숨죽이고 섰던 사냥꾼 두 명이 앞사공 이씨의 수신호에 따라 방문을 발로 걷어찼

다. 뒤이어 예닐곱 명의 사냥꾼들이, 그때부터는 발자국 소리를 겁내지 않고 일제히 우당탕탕, 축담과 섬돌과 마루에 뛰어 오르거나 획, 건너뛰면서 봉긋방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사냥꾼들은 마당에 둥그렇게 둘러선 채로 총을 내리지 않고 동료들을 엄호했다. 주모와 색시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다가, 앞사공 이씨가 흉악한 표정을 지으며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자,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치며 부엌으로 안방으로 숨어들었다.

“대장, 텅 빈 이부자리뿐인덱쇼? 벌써 눈치 까고 도망친 모양입니다요.”

사냥꾼 하나가 봉긋방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이씨가 이를 갈았다.

“이런 약삭빠른 이무기놈!”

“대장, 이제 어떡하죠? 이무기놈도 정면 승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도망친 모양인데, 어쨌든 이무기는 이무기니까 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씨는 엄지와 검지로 턱을 톡톡 두드리며 잠시 생각하다 결단을 내렸다.

“그래. 멀리는 도망가지 못했을 거다. 일단 강포수, 자네가 1조를 데리고 이 주막의 북쪽을 뒤지고, 문포수, 자네는 2조를 데리고 동쪽, 박포수, 자네는 3조를 데리고 서쪽, 김포수, 자네는 4조를 데리고 남쪽을 뒤지게. 살살이 뒤지게. 놈을 찾는 즉시, 총을 쏘 것! 나머지 조는 총소리를 듣는 즉시, 소리가 난 쪽으로 이동할 것! 알겠나?”

사냥꾼들이 이씨의 명령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주모와 색시들에게 눈알을 부라리며 엄포를 놓았다.

“너희가 불러들인 자가 누구인지 알렸다? 동강 물길을 따라 이동하며 온갖 행악을 저지른 이무기! 그 이무기 놈이 떼꾼으로 둔갑하여 이 집을 찾아들었던 말이다. 너희는 이무기를 불러들인 죄인이니 이 시각부터 이무기를 사로잡을 때까지 몸을 사리고 입조심을 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알았나?”

주모가 정신없이 고개를 조아렸다.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릿님인지 포졸님인지 군사님인지 뉘신지는 몰라도 우리 천한 것들은 그저 믿고 따르겠습니다요. 그러지 않아도 엿저녁에 놈의 눈깔을 보고는 혼이 나가서 입때껏 누워있었습니다요.”

이씨가 눈을 부릅떴다.

“주모도 그놈의 얼음 같은 눈깔을 봤더랬나?”

“예, 그럼요. 하늘님, 부처님, 산신님, 용왕님께 맹세코 그놈의 눈깔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요.”

“주모가 제대로 보았네. 으흠!”

이씨는 문득, 혹시 이무기가 빠뜨리고 간 물건이 있지 않을까, 함께 다니던 예쁜 총각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졌다. 그는 들고 있던 총을 어깨에 멘 총집에 집어넣고 뒷짐을 진 채, 봉숫방으로 들어갔다.

선이와 용이 둘 다 갈아입을 옷 따위를 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방 안에는 용이의 양식인 새똥 같은 환약 두 알만이

굴러다녔다. 이씨는 환약을 집어 들고 모양을 살펴보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용 못 된 이무기가 먹는 것이니 용이 먹는 선약일 리는 없고..... 그래도 보통 이무기가 아니잖아? 선약은 아니라도 선약 근처에는 가겠지?”

그는 고개를 들고 입을 짹 벌려 환약 두 알을 한꺼번에 털어 넣었다. 그때 그의 눈에 천장을 시꺼멓게 뒤덮은 거대한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서까래 위 어둠 속에서 칭칭 파리를 튼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게 뭐지? 파리를 풀면, 십 리는 못 되도 오 리는 너끈하겠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씨의 혀가 환약의 맛을 감지했다. 우웁, 우웁, 우웁. 저녁 먹은 것까지 앓은 자리에서 토한 이씨는 등허리에 얼음송곳처럼 내다 쏘히는 극심한 냉기를 느꼈다. 이씨의 눈이 다시금 천장을 향했다.

파리가 한 번 뒤척거렸다. 그러자 몸의 절반쯤이 황금빛 용의 비늘로 덮인 이무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용이의 눈빛에 털이 쭈뼛쭈뼛 서면서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씨의 머리털이 밤송이처럼 곤두섰다. 이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제 토사물 위로 쓰러져 버렸다.



목

욕이라기보다는 물장난을 마친 후, 선이는 뱅글이를 안고 벌거숭이 모습 그대로 물에서 나왔다.

“아, 추워. 왜 아까보다 더 춥지? 코털에 고드름 달릴 것 같아. ㅋㅋ. 그렇지, 뱅글아?”

그때 선이의 눈에, 거대한 동아줄 같은 것이 꿈틀꿈틀, 물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선이는 놀라서 입을 딱 벌린 채,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뱅글이도 선이의 가슴에 착 들러붙었다.

이무기는 선이 앞에서 아주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선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뱅글이를 내려다 봤다.

“내가 꿈을 꾸 거니? 아님 진짜로 이무기를 본 거니?”

선이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으며 남한강 물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보았던 이무기를 떠올렸다.

진짜야. 진짜 이무기야. 지금 뱅글이를 보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 걸. 남한강에선 꿈인지 생인지 헷갈렸지만 여기선 아니잖아. 그런데 이무기가 왜 나를 두 번씩이나 해치지 않고 그냥 갔지?

선이는 뱅글이를 꼭 껴안으며 몸을 떨었다. 그런데 몸을 떨

때마다 기분 좋은 소리로 팔랑거리던 당백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저고리 안쪽이 묵지근하지 않고 새털처럼 가벼웠다.

“에구머니나. 뱅글아. 돈이 없어. 당백전 꾸러미가 사라졌어. 어떡해? 어떡해? 아, 어쩔 좋아?”

선이는 뱅글이를 내려놓고 혼비백산한 낫빛으로 주막을 향해 달렸다. 뱅글이가 쫄랑쫄랑 선이를 따라왔다.

“형님! 형니이이이이이임!”

너무 놀란 데다 숨이 턱에 걸려 목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

그때 총을 든 사냥꾼 다섯 명이 선이를 막아섰다.

“야, 어린 총각! 혹시 신체가 네 두 배는 되고 어깨가 떡 벌어진 때꾼 놈이 이곳을 지나가더냐? 그놈이 바로 사람으로 둔갑한 이무기다.”

“사람으로 둔갑한 이무기는 모르겠고요. 진짜 이무기는 봤어요. 저기 능수버들 옆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냥꾼들이 버드나무 쪽으로 눈길을 돌린 사이, 선이는 또 달렸다.

한밤중인 데도 주막 마당과 마루, 부엌 옆 명석자리에서 주모와 색시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선이는 내쳐 달려 봉숫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 안에는 역한 토사물 냄새뿐, 아무도 없었다.

“형님이 저녁 잡순 걸 토하셨나?”

선이는 마루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방문이 덜컥거렸다. 선이

는 뒤돌아 서서 다시 한 번 방 안을 살펴보았다.

“형님! 어디 계세요? 큰일 났어요, 형님! 나, 어떡해요?”

색시 한 사람이 다가왔다.

“애, 정신 차려! 그 형님이란 사람, 사실은 둔갑한 이무기란다. 조상의 음덕으로 목숨만은 살았구나, 생각해.”

선이는 색시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방 저 방, 모든 봉
뚝방과 주모가 쓰는 안방, 부엌과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다. 용
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선이는 오금이 풀려 그 자리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꿈

속에서도 선이는 용이를 찾아 헤매었다. 잃어버린 당백
전이 생각나면, 또 그것을 찾아 헤매었다. 그러다 용이를 찾고
또 찾고, 당백전도 찾고 또 찾았다. 꿈속에서 온 세상은 출구
를 알 수 없는 가시덤불 미로로 바뀌어 있었다. 선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용이를 찾고 당백전을 찾았으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아아,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어머니랑 언니가 눈이 빠지게 나를 기다릴 텐데.....

약방 집에 외상값 갚아야 하는데.....



떼돈, 떼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용이 형님, 용이 형님.....

선이는 땀과 눈물에 흠뻑 젖은 얼굴을 연신 소맷부리로 훔치며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을 헤매었다.

마침내 선이가 지쳐 쓰러지는 찰나, 누레진 하늘에서 거대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다. 처음에는 시꺼먼 동아줄 같더니, 선이에게 다가오면 올수록 황금빛이 선연해졌다.

저게 뭘까?

뭐라도 좋아. 나는 저걸 잡아야 해.

선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어머니가 들려주던 옛이야기에 나오는 어린 오누이처럼 동아줄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또 뻗었다.



“가 위 들렀나 봐. 저럴 땐 옆에서 깨워줘야 해.”

“그렇지? 이봐, 총각! 총각! 벌떡 일어나게. 얼른!”

색시 하나가 선이의 어깨를 흔들었다. 색시의 옆에 서 있던 사냥꾼이 발로 선이의 오금을 툭툭 쳤다. 사냥꾼의 바지에 풀물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다.

마침내 선이가 두 손을 위로 올리고 허우적거리다 눈을 떴

다.

여기가 어디지? 황금빛 동아줄은 어디로 갔지?

하룻밤 새 얼굴이 아예 새까만 쥐눈이콩처럼 변한 앞사공 이씨가 어기적어기적 선이에게 다가갔다. 주막 색시들과 사냥꾼들이 길을 내주었다.

“이보게, 총각. 나, 기억나는가?”

“누구시죠?”

“황새여울에서 뒷사공 잃고 자네 뗏목을 얻어 탔던 앞사공이네.”

“아, 단양나루에서 소금배 타고 가신? 아유, 뒷사공을 잃은 상심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 사이 얼굴이 많이 바뀌셨네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왜 여기 있죠?”

이씨는 둘러선 사냥꾼들을 쪽 둘러보았다.

“이 총각을 보게. 얼마나 놀랐으면 글썽 이렇게 혼이 다 나갔을까. 그 이무기란 놈이 보통 악질이 아닌 건 확실해.”

이씨는 자기가 토하고 기절까지 한 것이 겁쟁이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변명을 검해 그렇게 말했다.

“총각, 다 이해하네. 왜 안 그랬겠어? 그 흉악무도한 이무기와 며칠째 숙식을 함께했으니 말이네. 어젯밤, 자네는 이 주막에서 이무기를 찾다가 그만 정신을 잃었었지. 나는 혼자서 이무기와 맞닥뜨리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고.”

선이는 그때야 꿈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아, 용이 형님, 용이 형님 못 보셨어요?”

이씨가 혀를 찼다.

“쫓쫓. 그놈이 요괴여. 그냥 짐승이 아니라 요괴라고. 요괴가 아니라면 사람을 홀려도 이렇게까지 홀리진 못하지.”

선이는 이씨의 말을 들은 둥 만 둥,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저, 어젯밤에 나루터 북쪽 수양버들 아래에서 이무기를 봤어요! 정말로, 뭐랄까, 굉장히 크고 길고 무섭고..... 아저씨도 이무기를 봤다고요?”

“봤지. 두 번이나.”

하지만 선이는 곧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이마를 찌푸리며 애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보다 우리 형님 못 보셨어요? 우리 형님이 사라졌어요. 제가 나가기 전까지 분명히 제 옆에서 잠을 자던 형님이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요? 그리고요. 제 돈, 제 돈을 누가 훔쳐갔어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씨는 주막 색시에게서 송냥 한 잔을 건네받아 선이에게 주었다.

“총각, 놀라지 말고 듣게나. 자네가 봤다던 그 이무기는 바로 자네와 함께 뗏목을 탔던 그 형님이라는 사람일세. 이무기가 사람으로 둔갑한 거지. 내말 알아듣겠나? 큰돌이도, 자네 마을의 장서방이라는 이도 모두 그 이무기가 죽였다네! 그리고 누군가 자네 돈을 훔쳐갔다고? 그것도 그 이무기의 소행일 거야.”

선이는 콧등에 주름을 잡았다가 곧 헛웃음을 웃었다.

“아저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이 형님이 이무기라니요? 하, 참,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하

하하.”

선이는 웃다 말고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사냥꾼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설마 용이 형님 잡으러 오신 거예요? 이씨 아저씨! 아저씨가 이 사냥꾼 아저씨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저씨, 정말…….”

이씨가 선이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봐! 자네는 지금 요괴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그놈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평생 그놈의 종으로 살 거야.”

“아저씨, 아무리 그러셔도 전 못 믿어요, 아니 안 믿어요.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저씨가 알 리 없지요. 차가운 성싶으면서도 알고 보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데요. 어서 돌아들 가세요. 저는 여기서 며칠 더 기다려볼래요. 다시 생각해 보니 용이 형님도 저를 찾으러 나간 거 같아요. 제가 괜히 한밤중에 목욕을 나가는 바람에…….”

선이는, 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며 조심할 것을 당부하던 용이의 말을 떠올리곤, 그제 울먹거렸다.

“용이 형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바람에……. 모두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저한테 신경 끄시고요, 엉뚱한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아저씨 볼 일이나 보세요.”

이씨는 팔짱을 낀 채 잠시 생각했다.

홀렸어. 단단히 홀렸어. 이 녀석은 그 이무기 놈의 눈을, 그 소름끼치도록 차가운 눈을 못 보았던 말인가? 그놈이 이 녀석한테만 따뜻한 눈빛을 보냈단 말인가? 알 수 없는 일이군. 어

찢든 녀석도 이무기 놈한테 흘렸지만, 이무기 놈 역시 녀석을
 총애한 것 같아. 이용 가치가 있는 녀석이야. 명확한 물증 없
 이는 녀석을 설득할 수 없을 성싶으니, 총대장님께 보고하고
 의논을 해봐야겠군.

“알았다. 당장은 믿기 힘들겠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거다. 또 보자.”

이씨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고 주막에서 철수했다. 물론 완
 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사냥꾼을 주막 머슴으
 로 위장하여 선이를 감시하게 하고 혹시라도 이무기가 다시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경계 태세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이틀째 용이를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친 선이에
 게, 체격이 건장하다 못해 이물스러운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어이, 자네가 그 형님 잃고 떴돈 잃은 총각인가?”

선이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잃고, 떴돈 잃고..... 맞아요. 제가 그 바보 같은 선이
 랍니다.

“오, 내가 제대로 찾아왔군, 제대로 찾아왔찌. 자네, 이무기

사냥을 다니던 앞사공 이씨, 알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허짜래기 말을 하는 이 사람, 나를 알고 앞사공 이씨를 아는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선이는 그제야 눈을 치켜뜨고 사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씨가 자네한테 이상한 애길 했지?”

“예, 말도 안 되는 애길 했어요.”

사내는 선이와 오래 전부터 친한 사이인 척, 선이가 앉아 있던 측담 옆에 무릅없이 엉덩이를 깔고 앉았다.

“나는 이씨하곤 생각이 달라. 자네를 도와준 용이라는 총각은 이무기가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요. 용이 형님이 이무기였다면, 왜 저를 안 잡아먹고 도와주기만 했을까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떼돈을 벌기는커녕 애초에 떼꾼으로 나서지도 못 했을 거라고요.”

“그랬겠지. 흐흐흐. 이 사담아, 내 말 드려보게. 이씨는 그날, 이 주막 봉숫방에서 이무기를 보았고, 자네는 나두터 북쪽 수양버들 아대에서 이무기를 보았지. 그게 무슨 애기인가? 못된 이무기 놈이 용이 총각을 잡아먹고 자네 돈을 훔쳐갔다는 거 아닌가? 용이 총각을 잡아먹은 다음, 이씨한테 발각이 되고 자네 돈을 훔친 다음 자네 눈에 띈 거지. 어때? 내 말이? 맞지? 맞지?”

선이의 우묵 들어간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렇그렇 괴었다.

“그럴 듯한 말이지만, 저는 믿지 않을래요. 용이 형님처럼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이무기 밥이 되었을 리 없

으니까요.”

“그대, 그대. 자네는 참 똑똑하고 의지 있는 총각이야. 어찌면 용이는 지금, 이무기의 동굴에 숨어 이무기를 처치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더니까 자네가 용이를 돕는 길은 이무기를 죽이거나 적어도 힘을 빼는 일이야. 그치? 그치?”

선이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어두컴컴한 동굴의 돌기둥 뒤에 숨어 호시탐탐 이무기의 빈 틈을 노리는 용이의 빛나는 눈동자를 그려보았다.

어쩌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선이가, 이번에는 제법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더니까 언제라도 이무기를 발견하면, 곧바로 이 폭약을 던지게. 알겠나?”

사내는 마치 몸에서 뜯어내듯 옷 속에서 폭약을 꺼내 선이에게 건네주었다. 붓 가운데를 뚫 자른 것 같은 모양이었다. 선이가 엉겁결에 폭약을 받으며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시죠?”

“아, 난 사담을 해치는 짐승을 잡으러 다니는 사담이야. 이무기가 사담들을 무더 죽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 땅 끝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냥 휙,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충격이 가해지면 터지게 되어 있는 물건이거덩. 들리지 않도록 잘 간수해. 알았써?”

“휴, 어쨌든 고마워요.”

선이는 자기 말을 들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폭약을 요모조모 살펴보았다. 그러느라 뒤돌아선 사내의 검은 그림자가 인간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선이는 뱅글이를 데리고 주막을 나섰다. 발길이 천 근 만 근 무거웠다.

“아아. 용이 형님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뱅글아, 뱅글아, 뱅글뱅글 돌지만 말고 말 좀 해봐. 용이 형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니? 응?”

뱅글이도 선이의 걱정을 아는지 눈에 띄게 풀이 죽었다. 뱅글뱅글 돌지도 않고 가만히 선이를 따라붙었다.

설마 그 이무기한테 잡아먹힌 것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 래, 그 덩치 큰 아저씨 말대로 어딘가에서 이무기랑 한 판 불 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이무기를 이긴 다음에 이곳으로 와서 나를 찾지 않을까? 그렇담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는데..... 하지만 나는 벌써 옥쟁 이 아주머니한테 마지막 남은 엽전 몇 냥까지 몽땅 밥값, 망 값으로 털려 버렸으니..... 어머니, 언니도 이제나저제나 나

를 기다릴 테고..... 어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선이는 배 샅이 없어 덕포나루까지 가는 소금 배를 타지도 못할 형편이라 단양 나루터에서 뱅글이를 강물로 내려 보내고 작별 인사를 했다.

“뱅글아, 나, 돈 없어서 여기서부터 집까지 걸어가야 하거든. 나랑 같이 내내 같이 걷는 건 힘드니까 강물 따라 헤엄쳐서 올라오렴.”

선이가 손을 흔들자, 뱅글이가 뱅글뱅글 돌았다.

“우리 꼭 아우라지에서 만나자, 응? 혹시나 용이 형님 만나면, 선이, 아니아니 선우가 강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 말해줘, 응?”

뱅글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돌았다. 선이가 손나팔을 하고 외쳤다.

“이무기가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난 괜찮아. 나한테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할게. 너도 조심해. 가, 얼른 가. 나도 갈게.”

선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애써 고개를 돌리고 발길을 옮겼다.

오늘 점심 즈음에 용이 형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쓰윽,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밤에 나타나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형님만 곁에 계시면 조금도 무섭지 않을 텐데.

인심 좋은 민가를 만나지 못하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해야 할 처지였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선이의 어깨가, 돌덩이라도 얹힌 것처럼 축 처져있었다.

용이는 인간들의 이유 없는 해코지에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인간 세상에서 100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인간을 해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야? 엽령꾼의 농간 때문인 건 알겠지만, 자칭 만물의 영장이니 어찌고저찌고 똑똑한 척은 다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걸핏하면 엽령꾼 같은 녀석의 흥계에 속아 넘어 가냐고?

선이, 개도 똑같아. 멍청한 인간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조심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다니.....

하지만 선이를 생각할 때마다, 용이는 제 몸에 새로 생긴 용비늘이 찌릿찌릿 저리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용이는, 기절한 앞사공 이씨를 버려두고 나왔다가 나루터 북쪽 수양버들 아래에서 떼꾼 출신의 노름꾼 전씨가 선이의 저고리를 뒤져 당백전 꾸러미를 훔쳐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선이 역시 멍청한 인간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되뇌면서도 용이는 선이를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다.

수중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노름판으로 가는 것이 못 말리는 노름꾼의 생리! 단양을 뜯 노름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가까우면서 판돈이 큰 노름판이라면 역시 영월 덕포..... 덕

포로 가 보자.

용이의 짐작이 맞았다. 용이는 이무기의 모습을 거두고 인상 좋은 늙은이로 둔갑하여 전씨의 노름판에 끼어들었다.

“여기 판이 꽤 큰 것 같은데, 나도 한 뭇 끼고 싶소만.....”

합죽이 노름꾼이 용이를 보고 말했다.

“어이구, 낫살 깨나 잡수신 어르신이 괜찮겠어요? 여기 이 양반,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몰라도 요 며칠 사이, 노름판을 평평 튀기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이 양반’으로 불린 전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허허, 어디서 구해오긴 뭘 구해와? 마누라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꿈쳐놓은 돈을 몰래 내왔다니까.”

짜귀 노름꾼이 통을 놓았다.

“제기랄, 노름꾼 서방 만나 피죽도 못 끓여먹는 집안 여편네가 무슨 재주로 그런 큰돈을 꿈쳐놔?”

전씨가 판을 뒤엎을 기세로 성을 냈다.

“이런, 이무기가 물어갈 놈 같으니라고. 네깻 놈이 뭘 안다고 남의 여편네를 입에 담아?”

용이가 나서서 전씨를 달랬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노여움 푸시고 어서 판이나 벌입시다.”

“이봐, 노인네, 괜히 돈 다 잃고 울며불며 매달리지 말고 웬만하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주무셔, 응? 머리털도 몇 가닥 안 되겠구먼. 잘못하면 그 머리털 다 뽑히는 수가 있어.”

“머리털은 몇 가닥밖에 안 되지만 다행히 돈과 실력이 있소

이다. 자, 얼른 패 돌리시구려.”

전씨가 비웃거나 말거나 유들유들하게 받아넘기며, 용이는 전씨의 앞자리에 앉아 패를 받았다.

“시작하시죠.”

용이는 처음 여섯 번까지는 전씨에게 거푸 져주었다. 전씨는, 웃기는 늙은이야, 하며 판돈을 키웠다. 여섯 번 이긴 다음에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용이를 향해 천장이 울리도록 큰소리로 웃어주고는 서로가 가진 당백전 전부를 걸고 한 판 해보자고 달려들었다.

일곱 번째 판에서 용이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한 승부욕을 보이며 점수를 내기 시작했다. 전씨는 잔뜩 긴장했다. 얼굴의 주름골마다 배인 땀국물을 팔뚝으로 쓰윽, 닦았지만, 금세 찢든한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하압!”

기합과 함께 내놓은 전씨의 마지막 패는 용이의 그것을 당해 내지 못했다. 노름판이 파장하자, 용이의 옆에는 당백전이 3층 석탑으로 쌓여 있었다. 돈을 챙겨 유유히 걸어 나가는 용이의 뒷다리를, 전씨가 부여잡았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 날도둑놈아!”

용이가 뒷다리를 번쩍 들어 전씨를 내팽개치며 싸늘한 목소리로 한 마디 했다.

“사기꾼과 노름꾼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며?”

전씨는 깜짝 놀랐다. 얼음송곳에 뒤통수를 찔린 것 같았다.

“누, 누, 누구냐? 너, 너, 넌?”

용이는 전씨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 대신, 한 번, 진하게 쏘아 봐 주었다. 전씨는 그 눈빛의 냉기에 압도되어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했다.

용이는, 저자에서 구걸하는 영월의 걸인들에게 당백전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걸 밋천 삼아 약초장사라도 해보시오들.”

걸인들은 난데없는 행운에 뿔 듯이 기뻐하며 다투어 용이를 치하였다.



선이는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걸었다.

이건 별이야. 내가 나한테 내리는 별이라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아프고 힘들어야 평생토록 잊지 않을 거니까.

선이가 이를 악물고 걷기를 멈추지 않자, 발은 스스로 굳은살을 만들어 고통을 견뎠다. 나중에는 고통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까지 느껴졌다.

그래, 돈도 잃고 형님도 잃었지만, 다 잃은 것은 아니야. 내가 얻은 게 뭔지 꼬집어 말할 순 없어. 하지만, 분명히 있어.

민가에 하룻밤 유숙을 부탁할 때마다 선이는 자기가 무엇을 얻었는지 깨달아갔다. 사람들이 선이를 한 사람의 믿을 만한 나그네로 대접해주고 있었다. 선이의 눈빛은 호기심에 가득 찬 초롱초롱함을 넘어 차분한 지혜를 담았고, 선이의 빠르고 가벼운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하고 믿음성스럽게 바뀌었다. 종일 걸어 피곤한 선이의 몸뚱이는 호랑이가 물어 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선이의 영혼은 가족을 향한 끝없는 근심걱정을 한 구석으로 치워놓았다.

신록이 시나브로 짙어졌다. 선이는 허파 깊숙이 신록을 숨쉬며 기운차게 걸었다.

“와아, 오랜만이다, 용머리야.”

꽃 모양이 용의 머리 같고 시원스런 보랏빛이 신비감을 주는 용머리 꽃이, 선이를 향해 반가운 듯 꽃잎을 흔들었다.

“그래그래, 너를 봐서 정말 기뻐, 하지만 널 보니까 용이 형님이 더 많이 생각나는구나. 그 형님이 너를 꼭 보고 싶다고 했거든.....”

용머리가 또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애가 자꾸 머리를 흔드네?”

그때 선이의 마음에 용머리의 마음이 전달되었다. 용머리는, 자기를 꺾어서 용이에게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정말이니, 용머리야? 정말 널 꺾어도 괜찮니?”

용머리 꽃이 고개를 끄덕이듯이 앞으로 깊이 수그렸다.

“아냐, 널 꺾지 않고, 널 데려갈게.”

선이는 주위에서 끝이 뻗족한 나뭇가지를 주워 와 용머리 꽃

을 뿌리까지 캐 올렸다.

“정말 고마워! 너를 보면, 용이 형님도 기뻐할 거야.”



마침내 저 멀리, 아우라지가 보였다. 선이의 왼손에는 용머리 꽃이 뿌리째 들려있었고, 짚신은 닳을 대로 닳아 너털거렸다.

“용머리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으악!”

선이의 다 해진 짚신발이 바위너설을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갔다. 선이는 오른손으로 간신히 바위틈에서 자라는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다. 용머리 꽃을 잡은 주먹을 펴고 양손으로 소나무를 붙들고 힘을 모으면 다시 바위너설 위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선이는 용머리 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 너를 놓지 않을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너를 내 저고리 앞섶에 끼울 거야. 그리고 양손으로 이 소나무를 붙들고 올라설게. 알았지?”

하지만 선이가 용머리 꽃을 저고리에 끼우느라 무게중심을 옮긴 사이, 소나무 가지가 툭, 부러지고 말았다.

퐁당.

선이는 잠깐 눈을 뜨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다.

눈을 떠야 해. 정신을 잃어서는 안 돼. 정신 차리고 눈을 떠야 해.

이윽고 눈을 뜨고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물을 차고 나오려는 선이 앞으로, 전에도 본 적이 있는 이무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무기가 장서방을 죽이고 큰돌이를 죽이고 또 누구누구를 잡아갔대!

홍악무도한 이무기 놈!

이무기가 용이 총각을 잡아갔어!

네 돈을 훔쳐간 것도 이무기야!

이무기를 보면 이걸 던져. 그게 용이를 돕는 길이야.

알겠나?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돼!

이무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선이는 용이를 떠올렸다.

용이 형님!

선이는 바지 주머니에서 붓을 반으로 자른 크기의 폭약을 꺼냈다.

용이 형님!

폭약이 선이의 손을 떠났다. 그 순간, 선이의 눈에 이무기의 꼬리에 묶인 빨간 갑사뎡기가 들어왔다.

저, 저건?

이무기 주변에서 귀가 먹먹하도록 큰소리와 함께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그때 수달 뱅글이가 선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선이는 본능적으로 물을 박차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귀가 먹먹해지자, 머릿속도 멍해졌다. 선이는 제 뺨을 찰싹찰싹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뱅글이가 선이의 귀와 목을 핥았다.

“뱅글아, 넌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귀 탓인지, 제 귀에서 울리는 제 목소리가 꼭 남의 것 같았다. 다행히 뱅글이는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선이는 뱅글이를 품에 안고 뺨을 갖다 댔다.

“그런데, 왜 저 이무기가 붉은 감사뎡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건 내가 아버지한테 선물 받아서 용이 형님 발에 난 상처에 묶어드린 건데.....”

뱅글이가 선이의 눈을 뵈히 올려다보았다. 선이는 뱅글이와 눈을 맞추며 뱅글이의 마음이 전하는 바를 느끼려 했다.

“그래? 그렇다고? 그 앞사공 이씨 아저씨 말처럼 용이 형님이 이무기이고 이무기가 용이 형님이라고? 형님은 승천을 위해 1000년 동안 어떤 생명도 해하지 않고 수행해온 이무기인데, 지금 오해와 누명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고? 형님이 지금은 이무기에 불과하지만 곧 동강의 수호신이 될 거라고? 수호신이 있어야 동강 주변의 모든 목숨불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어.

난 어쩔 형님이랑 더 오래, 더 깊이 사귀고 싶었나 봐. 정이 언니랑 유천리 총각이 그러듯이. 하지만 형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었어.

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뚝, 떨어졌다. 선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친 뒤, 다시금 뱅글이의 눈을 응시했다.

이제야 알겠어. 어째서 형님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힘이 펄펄 났는지, 어째서 그렇게 물길을 잘 알고 떼꾼들보다도 떼를 잘 몰랐는지, 왜 그렇게 나더러 동강 동식물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는지.....

“근데 뱅글아,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형님을 구해드려야 해!”

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살폈다. 그때 선이의 눈앞에 엽령꾼이 나타났다. 여량리 쪽에서는 앞사공 이씨와 조무래기 사냥꾼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선이가 던진 폭약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엽령꾼이 총출동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선이는 여전히 귀가 먹먹하여 고함지르듯 큰소리로 엽령꾼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이무기는 나쁜 짐승이 아니에요. 승천하여 동강의 수호신이 될, 소중한 신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무기를 치우세요. 이씨 아저씨도요!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나쁜 놈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쓴 거라고요!”

엽령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흐흐흐, 저 이무기가 동강의 수호신이 될 거다는 사실, 그게 바로 내가 저 이무기를 죽이려는 이유다!”

“네?”

“고마워. 네 손으로도 이무기를 해치고, 어디 있는지 장소까지 알려주다니, 아주아주 자맏어요! 참 자맏어요! 인간도 어떨 때는 참 쓸모가 있단 마디야.”

선이는 그제야 엽령꾼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당신이 용이 형님한테 누명을 씌운 나쁜 놈이군요.”

“흐흐흐, 이데 아닷냐? 멍텅한 인간들 같으니.”

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이는 스스로가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사냥꾼 패들은 앞사공 이씨의 지휘 아래, 용이를 쏘아댔다. 1조가 먼저 쏘고 총알을 장전하기 위해 물러서면, 기다리고 있던 2조가 한 발 내딛으며 총알을 날렸다. 3조와 4조도 그렇듯 겨끔내기로 총을 쏘았다.

엽령꾼은 용이가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흐흐흐, 오늘이 바도바도 이무기 네놈의 제삿날이다! 몰랐

지? 몰랐지?”

조무래기 사냥꾼들은 가지고 온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용이에게 총을 쏘아댔다. 용이는 그에 맞서 불기둥을 뿜어내고 폭우를 쏟아 부었다. 사냥꾼들은 용이의 꼬리에 맞아 나가떨어지기도 하고 폭우에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했다. 앞사공 이씨는 벌써 도망가고 보이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한 엽령꾼이 양손을 허리에 올렸다.

“인간 놈들, 조금만 더 버텨주지.”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엽령꾼이 본래 모습을 찾아갔다. 달걀처럼 둥그렇고 이목구비가 없는 머리통이 먼저 나타났다. 못, 톱날, 칼, 포탄, 총알, 화살 따위로 이루어진 괴상망측한 몸통이 뒤이어 나타났다.

“어쨌든 전투력이 절반 정도는 떨어진 것 같으니까 내가 나설 차례군. 기다려라, 이무기야. 엽령꾼 나리가 나가신다!”

엽령꾼이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 몸이 순식간에 다섯 개의 몸으로 나뉘어 용이에게 덤벼들었다. 용이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불을 뿜긴 했지만, 불기운이 시들했다. 비를 내리긴 했지만, 빗발이 약했다.



정선 땅, 동강 물길에 깃들여 사는 물고기들아, 새들아,
그리고 풀꽃들아. 제발 용이 형님을 도와줘. 내 친구들아, 그
를 도와줘. 어리석은 인간의 죄를 씻어줘. 제발 그를 도와줘.

선이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었는지, 아우라
지 주변은 별안간 새들의 날갯짓 소리,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
러 헤엄쳐 올라오는 소리, 길짐승들의 발자국 소리로 소란스
러워졌다. 선이의 마음 속에서 그 소리들이 언어로 바뀌어 물
결 쳤다.

선이야, 우리 마음도 네 마음이란 똑같아. 그가 우리의 수호
신이 되어야 해. 우리 중에는 멸종이 코앞으로 닥친 친구도
많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호신이 필요해.

엽령꾼은 제 머리통을 필사적으로 쪼아대는 새들을 향해 날
카로운 못을 쏘쏘, 튕겼다. 그리고 다리를 물어뜯는 물고기들
에게는 오염된 기름을 처발라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고라니,
샷, 멧돼지 따위 길짐승들에게는 화살을 쏘았다. 엽령꾼이 제
일 성가셔한 것은 외려 풀꽃이었다. 칼풀은 엽령꾼의 얼굴을
사정없이 베었고 도꼬마리는 엽령꾼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
았고 칙덩굴은 엽령꾼의 몸뚱이를 포박하듯 칭칭 감았다. 포
탄을 터뜨려 웬만치 떨어내도 금세 달려드는 풀꽃들 때문에

엽령꾼은 용이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용이 또한 선이가 던진 폭약을 맞고 사냥꾼들의 무수한 총알에 상처를 입은 데다 엽령꾼의 여러 가지 무기에도 타격을 받은 뒤라, 전투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정신을 집중하기도 힘들어 비를 내리려 해도 폭우는커녕 이슬비밖에 내리지 못했다.

“흐흐흐, 겨우 이따위 이슬비도 날 어쩔 셈이냐? 어서어서 항복해! 항복해!”

용이는 숨을 고르기 위해 강물 속으로 몸을 감췄다.

“도망가는 거냐? 비겁한 이무기야!”

엽령꾼은 물속으로 총알을 쏘아댔다.

“뱅글아, 어찌면 좋지?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선이는 발을 동동 굴렀다. 용이를 구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 들려는 선이를, 뱅글이는 번번이 막아섰다. 선불리 물에 들어갔다가 용이의 신경을 흔들리면, 되레 엽령꾼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절부절못하는 선이에게 동강할미꽃이 다가왔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다리야. 세상에, 안 아픈 데가 없네그려.”

“할머니, 할머니는 동강할미꽃이잖아요!”

“그래, 맞아. 동강할미꽃이야. 늙어서 안 아픈 데가 없고 힘이라곤 없지만, 보고 들은 게 많아서 아는 것도 많지.”

“그럼, 제가 용이 형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아세요?”

“알지, 알고말고.”

동강할미꽃은 흰 솜털이 박힌, 신비스런 보랏빛 꽃잎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정선 땅, 동강 물길에 목숨붙이고 사는 동식물의 이름을 불러주렴. 이름을 부르면 정령이 깨어나지. 정령들이 저 이무기에게 힘을 줄 거다.”

“아, 그거라면 자신 있어요!”



“**큰** 유리새, 때까치, 곤줄박이, 어치, 백할미새, 딱새, 꼬마물떼새, 검은댕기해오라기, 노랑턱멧새, 검은등할미새, 흑흑..... 제발. 비오리, 귀제비, 검은딱새. 동강에 사는 연준모치, 어름치, 배가사리, 꺾지, 납자루, 가는 돌고기야 제발, 형님을 구해줘. 산자고, 싸리나무, 멸가치, 속단, 개미취, 꿩의 바람꽃, 흰여뀌, 긴산꼬리풀, 괴불나무, 윤판나물, 자주쓴풀, 서어나무, 산박하, 벌개미취 그리고 용머리. 내 목소리가 형님에게 닿아, 닿아서 형님의 상처를 치료해주길.....”

선이는 뗏목에서, 그리고 소금 배에서 했던 대로 정령들의 이름을 불렀다. 물속의 용이에게 잘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외쳤다.

선이의 음성을 들은 용이의 몸에 용 비늘이 후두두, 늘어나기 시작했다.

선이야.

선이야.....

용 비늘이 늘어나는 만큼 용의 기운이 솟아났다.

용이는, 비상하는 용처럼 솟구쳐 올라 용의 기운으로 불을 내뿜었다. 그 위력은 폭탄 수준이었고, 내리는 비는 화살이나 채찍 같았다.

“뭐, 뭐야, 이거? 뭘 했기에 다시 힘이 세지는 거야? 아, 짜딩나. 짜딩나. 뭐야? 뭐야?”

이유 없이 힘이 세진 용이를 보고 당황한 엽령꾼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용이는 수세를 벗어나 엽령꾼을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엽령꾼은 저를 향해 떨어지는 불덩이를 피하기 위해 몸뚱이를 여러 개로 분리했다. 한 덩어리가 불타더라도 다른 덩어리가 살아 있으면, 엽령꾼은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이의 꼬리 공격을 받은 엽령꾼의 덩어리 다섯 개가 갈기갈기 부서지고 분해되어 힘을 잃었다. 용이가 뿜은 불덩이가 엽령꾼의 머리를 향해 돌진했다. 머리를 잃으면 끝이었다. 엽령꾼은 몸뚱이 하나를 던져 불덩이를 막고는 바로 줄행랑을 놓았다.

“에다 모드겠다. 도망가자.”

군데군데 부서져 흩어져 있던 못, 톱날, 칼, 대포, 총알, 이름을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이 도망가는 엽령꾼을 따라가며,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 그의 몸에 척척 달라붙었다.

용이는 1000년 동안 그래왔던 대로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그런데 엽령꾼이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치켜들고 용이를 향해 비장의 무기인 동구멍 대포를 쏘았다. 용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대포알을 피했지만,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흐흐흐, 내가 이대도 도망갈 둘 알았쨌? 언젠가 네놈을 죽이더 또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이윽고 엽령꾼이 완전히 몸을 감췄다.

서녘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용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비틀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서산 노을이 유별나게 붉디붉은 저녁나절이었다.

아우라지 바위너설에 쓰러져 누운 용이의 발에는 여전히 선이의 감사땀기가 묶여 있었다.



선이는 용이가 쓰러진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용이의 머리를 제 허벅다리에 올렸다. 용이의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고, 선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 흘렀다.

“용이 형님.....”

용이는 선이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선이야, 아리랑 좀 불러줘.....”

선이, 선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형님은.

처음부터 다 알면서 나를 도왔던 거야. 그런데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애먼 짓만 해대고.....

아우라지 나루터에 나타나 떼 모는 기술을 보여주던 용이. 황새여울에서 죽을 고비를 맞았던 일. 한가로웠던 남한강 물길. 함께 한양 장거리를 누비던 시간. 소금 배에서 용이의 발에 갑사땀기를 매어준 일.....

갓가지 추억이 선이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선이는 꼭 잠긴 목을 고르기 위해 몇 번 기침을 했다. 그리고 용이를 위해, 선이 자신을 위해, 둘을 도와준 동식물 친구들을 위해, 아리랑을 불렀다.

만첩산중에 딱새들은 숲에서나 우는데

나는 이곳에서 우네

앞 남산 불 뼉대 끝에는 솔개미 한 쌍이 돌고

늘어진 나뭇가지엔 동고비 한 쌍이 돈다

춘삼월에 피는 꽃은 진달래 아니요

동면 산천 돌산바위에 할미꽃 핀다



봄철인지 가을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 각시붓꽃이 날 알려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선이의 눈물 젖은 아리랑을 들은 용이의 얼굴에 얇은 웃음기가 서렸다.

“선이야.....”

“형님, 기운 차리세요! 전,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선이의 눈물이 용이의 가슴팍에 후두두, 떨어졌다. 저고리가 젖으면서 저고리 속에 있던 발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 이것!”

용이가 힘겨운 손짓으로 저고리 속에서 광목 발기를 꺼내 선이에게 건넸다.

“이것을 들고 덕포에 가서.....”

“형님.....”

용이가 손을 떨어뜨렸다. 발기 두루마리도 함께 떨어졌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

“.....”

용이가 눈빛으로, 어서 발기를 챙기라고 말했다. 선이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더듬더듬 발기를 찾아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선이의 손짓에 그때껏 저고리 앞섶에 꽃혀 있던, 보랏빛 용머리꽃이 툭, 용이의 가슴팍으로 떨어졌다.

“어? 이, 이진.....”

용머리꽃의 신비스런 보랏빛 꽃잎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데도, 제 몸의 리듬에 맞추어 살랑살랑 흔들렸다. 선이는 무엇에 홀린 듯 그 꽃잎을 용이의 머리에 난 상처에 갖다 댔다.

“아아.....”

선이는 새어나오는 탄성을 멈추지 못했다. 용이의 상처가 기적처럼 아물기 시작했다. 찢어진 곳이 붙고,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배 글이가 머리로 선이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 선이는 탄성을 멈추고 정신을 차렸다.

“그래, 이름..... 이름을 불러야 해. 정령들의 힘을 불러내

야 해!”

선이는 다시금 목을 고르고 아리랑을 불렀다.

진흙 속에 핀 저 연꽃은 곱기도 하네요
세상이 다 흐려도 제 살 타이지요

정선같이 놀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
검은 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곰취 참취 미역취 개암취 마타리취 각시취 수리취 단풍취
병풍취, 취나물은 암만 먹어도 주정뱅이 될 일 없답니다. 홀아
비꽃대, 소경불알, 광대수염, 난장이붓꽃, 도둑놈의갈고리,
저마다 사연 있는 우리네 인생을 닮았네요.”

선이가 계속해서 동식물의 이름을 넣어 아리랑을 부르자, 이
름이 붙인 생물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선이와 용이의 주위에
모였다. 뒤이어 그 생물들의 정령이 두둥실, 떠올라 하얀 솜털
이 끝없이 펼쳐지듯 아름답고 환한 빛을 발하며 선이와 용이
를 감싸고 돌았다. 어느 샌가 선이의 옆에 있던 수달 뱅글이
와 동강할미꽃, 용머리꽃도 그들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

선이는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선
이에게 힘없이 안겨 있던 용이의 몸은 생명의 흰빛으로 휘감

기었다가 황금빛 용 비늘로 뒤덮였다.

사룡의 모습을 거의 되찾은 용이가 아우라지로 돌아가 승천을 준비하는 듯 하늘을 우러렀다. 이윽고 이무기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멋들어진 용의 수염이 생겨났다. 모든 빛을 내포한 생명의 흰빛이 눈부신 무지갯빛으로 분산되어 용의 수염을 아우라지 수면 위에 어른어른 비추었다.

사룡은 동강의 굽이진 은회색 강줄기를 닮아 있었다. 선이가 강물 속에서 보았던 이무기도 거대하고 경이로웠지만, 사룡의 모습은 이무기가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검푸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룡의 온몸을 뒤덮은 황금빛은 햇불보다 환히 아우라지를 밝혔다. 선이와 선이의 친구들은 한마음으로 사룡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에 그, 우리 선이는 언제나 돌아오려나.”

“어머니, 걱정 마시고 어서 주무세요. 우리 선이, 이제 널모레면 돌아올 거예요.”

“널모레, 널모레, 언제 그놈의 널모레가 온다니? 선이 그 어린것이 못난 어미 약값 때문에 남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눈물이 난다. 남의 수발을 들고 비위를 맞추는 일이 좀 힘든 줄 아느냐. 에그, 참봉댁 맘머느님은 친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제는 돌아오실 때도 되었건만, 왜 이리 늑장이신고.”

“한양 친정으로 근친 가기가 쉽나요? 어렵게 간 근친이니 그래도 웬만치 회포를 풀 만큼은 머물러야겠지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이 늘었지?

어머니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며, 정이는 그렇게 자문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시작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고 있었다. 어떨 때는 정이 스스로도 제 거짓말이 참말처럼 믿어져, 흠칫, 놀라곤 했다.

선이야, 얼른 돌아와. 이러다가 나, 거짓말쟁이 되겠어.

정이는 어머니가 깊이 잠들어 고른 숨소리를 낼 때까지 머리맡에서 지켜보다, 살며시 문을 열고 뒷마루에 나와 앉았다.

“우리 선이는 지금 덕포썰 와 있을 거야. 널모레면, 어머니, 언니, 하면서 저 사립문으로 뛰어 들어 올 거야.”

으스름 달빛이 뒷마루를 비추었다. 달빛 속에서 정이는 선이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유천리 총각 금동이를 보았다.

그리운 이들을 생각하며 정이는 나직나직, 아리랑을 불렀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릿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입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한 편, 경북궁 중수공사장 근처의 한 술집에서는 정목수가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목수, 정선 아리랑 한 자락 불러보게. 이런 자리에 아리랑이 없으면 섭섭한 건 둘째 치고 술맛이 안 나.”

“그러자고, 나도 마음이 영 헛헛해서.....”

정목수는 술잔의 술을 단숨에 비운 뒤, 큼큼, 목을 고르고 아리랑을 불렀다.

원추리 미나리 해마다 늪더라도

정선하고도 아라리야 더 늪지를 마시라

두견아 접동아 네 슬피 울지 말아라

네 슬피 우는 소리 들으면 고향생각 또 난다

정선읍에 일백 오십호 몽땅 다 잠들었을 이 밤

만리타향 객지에서 나는 잠 못 이루고 술만 푸네

정목수는 선이를 보내고 난 후, 그 전보다 더 고향이 그리고 아내가 걱정되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참이었다. 그 모든 슬픔과 근심을 아리랑에 담아 그런지, 정목수의 아리랑을 듣고 있던 동료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먼데를 바라보거나 제 허벅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우리 선이는 무사히 돌아갔을까.

암, 돌아갔겠지. 누구 딸인데?

선이를 생각하며 정목수는 술 한 잔을 더 마셨다.



선이는 덕포나루에서 소금 배 선주에게 밭기를 주고 광목을 인수하여 덕포에서 제일 큰 포목점에 넘겼다. 선이는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어린 총각이 대여섯 번은 떼를 탄 모양이군. 떼벌레들한테 뜯기지 않고 알토란같이 모아서 광목을 샀구먼그려.”

“.....”

“장하네. 이 돈으로 양친부모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짓고 참한 색시 얻어서 장가도 들게나.”

“예.....”

“음, 광목 값, 여기 있네.”

돈을 받아 나오는 선이의 뒤에서 포목점 머슴들이 뒷공문을 해댔다.

“단양나루에서 떼돈 잃고 실성했다는 그 총각 아닌가?”

“설마. 떼돈을 잃었다면서 저만한 광목을 어디서 구해?”

“하긴.”

“저 자식 저것, 노름판으로 직행하는 거 아냐?”

“노름판의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던데.....”

“하여튼 어린놈이 저 큰돈을 어디에 쓸지 엄청 궁금하네, 그치?”

“글쎄, 내가 따라붙어 볼까?”

“자네만? 그건 안 되지. 나도 가 보려네.”

선이는 빠른 걸음으로 혼잡하기 짝이 없는 덕포 장거리로 이동하여 그들의 미행을 따돌렸다. 그리고 여자 옷을 사서는 인적 없는 헛간에서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새로 땃고 장옷까지 훌렁 뒤집어쓰고 나왔다.

선이는 투전판과 선술집 앞에서 포목점 머슴들을 지나쳤다. 그들 중 아무도 선이가 광목 도매로 큰돈을 번 그 어린 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휴, 다행이야.

선이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었다.

국밥집 앞으로 양반집 부인네들이 탄 가마와 양식을 진 머슴들, 안주인의 자질구레한 짐 보따리를 인 몸종들의 행렬이 지



나갔다. 선이는 급히 달려 나가, 마음씨 좋아 보이는 백발의 여종에게 물었다.

“어디 가는 행차인가요?”

“정선 정암사에 불공드리러 간다오.”

“아, 저도 고향집이 정선인데, 덕포에 일이 있어 나왔다가 여차여차하여 혼자 남았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정선까지 어찌 갈까, 근심하던 차에 하늘이 도와주시어 댁네를 만났네요.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을 테니, 이 행차의 말미에 붙어 조용히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구려. 안 될 일이 뭐가 있소?”

“고맙습니다.”

선이는, 그리운 아우라지 고향집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에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지. 조심, 또 조심.....



경 북궁의 옛 위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중수공사장.

화재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흥선대원군이 오랜 시간, 노역에 시달려온 부역꾼들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다. 부역꾼들의 속마음이야 잔치고 뭐고 빨리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바에야 돈 걱정 안하고 술과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는 잔치도 그 나름대로 재미나고 흥겨웠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역꾼들은 패를 나누어 씨름도 하고 줄다리기도 했다.

부역꾼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대원군이 공사 감독들을 불러 말했다.

“경복궁 중건이 비록 나라의 중대사라고 하나,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제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부터 먼저 돌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아노라. 여러 감독들은 제 수하 부역꾼 중에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자를 한 명씩 추천하라. 일차로 그들을 먼저 방면한 뒤, 차후에도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방도를 강구해 보리라.”

대원군 앞에 엎드린 감독들 중에는 객관에서 정목수와 선이의 상봉 장면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홍감독도 있었다.



저 벽저벽, 자박자박. 하나는 크고 하나는 귀여운 발자국 소리.

허억허억, 하악하악. 하나는 걸걸하고 하나는 당찬 숨소리.

두 개의 발자국소리와 두 개의 숨소리가 심장까지 쫓아왔을 때, 어머니는 잠을 깬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어머니는, 누운 채로 몸을 옆으로 돌려 문고리에 매달린 실을 잡아당겼다. 지게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찌찌찌찌찌지지지지치치.

짹짹짹짹재재재재.

까치 두 마리가 검은른 너와지붕에서 마당귀 노간주나무 위로 날아다니며 쉬지 않고 지저귀고 있었다. 그믐밤처럼 까만 대가리와 등허리 아래 뺨바닥이 첫눈처럼 새하얗다.

어머니는 반쯤 감은 눈으로 까치들을 뒤쫓다가, 정이를 불렀다.

“정이야, 애, 정이야.”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던 정이가 얼른 달려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다.

“어머니, 또 머리 아파서 그러세요?”

“아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서.”

정이가 어머니의 관자노리를 지압하던 손을 옮겨 가슴께를 지그시 눌렀다.

“어혈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갔나? 심장이 왜 두근거리는지?”

어머니가 정이의 손을 치우며 일어나 앉으려 했다.

“에구구구구, 애, 정이야, 나 좀 일으켜 다오.”

정이가 어머니의 등을 받쳐주고 허리께에 이불을 껴 주었다.

“애, 저 까치들, 좀 봐라.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보다. 그것도 둘씩이나.”

“둘씩이나요?”

“그래. 에그, 안 되겠다. 애, 세숫물 좀 떠 와라. 갈아 입을 옷도 좀 꺼내오고, 꼴이 이래서야, 원.”



선이 이가 없는 새 혼자 살림을 꾸려가느라, 정이의 통통하던 볼이 흘쭉해졌다. 금동이 총각은 그게 안타까워 어른들 눈을 피해 부지런히 정이네에 메밀가루, 감자가루도 퍼다 주고 보리쌀도 가져다주었다. 나뭇짐에 숨긴 그런저런 곡물을 꺼내 줄 때마다 금동이 총각은, 선이가 언제 오느냐, 선이가 오면 너와 혼인할 수 있느냐, 라며 조급해했다.

모내기철이 되어선지 요 며칠은 금동이 총각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다. 정이는 울적한 심정으로 아우라지 강가에서 이 부잣집 빨래품을 팔았다.

“이 손으로 내 님의 옷을 빨면, 내 맘이 이리 고달프진 않겠지. 에그, 허구한 날, 남의 집 군동내 나는 옷이나 빨아주고 밥 빌어먹는 신세라니..... 강물아, 강물아, 너는 내 마음을 알겠지? 제발 덕분에 우리 아버지 무사하시고 우리 선이, 돈

많이 벌어 돌아오길, 너도 좀 벌어주련?”

정이는 세상이 처음 생긴 날부터 세상 끝나는 날 때까지 변
치 않을 것 같은 아우라지 강물 흐르는 소리에 부쳐, 애절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지계를 만들 때는 나무를 하자는 말이요
처녀총각 걸어갈 때는 정들자는 말일세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를 말아라
산골의 규중처녀가 일손이 뜬다

작년 같은 흥년에도 시집장가 잘도 가더만
올 같은 총각 풍년에 시집 한 번 못 가나

이 칸 저 칸 미단이문에 보름달은 밝았는데
보고픈 내 동생은 어디로 돌아서 여태도 안 오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62

같은 시각, 정목수는 아내 뒤편으로 옥가락지, 정이 뒤편으로 혼수에 쓸 채단 한 마름, 선이 뒤편으로 소설책을 사서 들고 덕포나루로 가는 소금 배에 올라탔다.

63

아우라지가 보이자, 선이의 발걸음은 두 배로 빨라졌다. 그나마, 경거망동하지 말자고 끊임없이 되뇌었기에 그 정도였다.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조금만 더 가면 솔내음 향기로운 솔수평이, 그리고 꿈에서도 그리웠던 어머니와 정이 언니를 만날 수 있을 터였다.

비단장옷을 벗어 던진 선이의 땀은 머리끝에서 붉은 감사땀기가 나풀거렸다.

낮익은 다람쥐가 선이를 보고 쭈르르, 달려왔다.



아리랑 소녀의 보험

지은이 / 박정애

인쇄일 / 2010년 12월 10일

발행일 / 2010년 12월 15일

발행처 /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기획&디자인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인쇄처 / 문화출판사 (033)252-2395

ISBN : 978-89-89335-20-7 03800

/ 비매품

본 책자는 신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Jeongseon Arirang Culture Foundation



비매품

03800



9 788989 335207

ISBN 978-89-89335-20-7